

보도연맹원 구속에 대한 견해 - 군경 수사기관의 합의하에 비상사태에 대비한 조치인 만큼 이에 一機關의 한사람으로서 상세한 내용발표는 할 수 없다.

“보련은 불일내 선처”

마산지구 衛戍사령관 李裕成 육군 중령은 18일 내방한 기자단과의 회견석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보도연맹원 문제 - 구속된 자중 극악질 자와 일시 남의 괴로움에 빠진 자가 있는데 우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2,3일 내에 잘 처리할 것이다.

마산중학교 재학생 구속후 조치 - 앞서 모단자로서 수명을 검거조사한바 있었으나 피검자가 학생이라는 신분이라 학교장이 학도사상선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을 곳으로 알고 학교장의 앞으로의 본인의 신분상을 警戒지도할 것을 책임지기를 하고 금차를 혼계정도로 대부분 석방하였으나 앞으로 일시적 모략 선전에 사로잡혀 경고망동하는 불순학도는 단속조사하여 준엄한 법의 처단을 받게 될 것이다(《남조선민보》 50. 7. 19).

그들은 보도연맹원들을 전원 구속하여 수감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7월말, 8월초순에 전원 수장되었다. 다음은 《경남도민일보》(99. 10. 5)에 보도되었던 유족들의 증언을 정리하였다. 편의상 김주완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전제하였다.

김영상씨(78·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곡안리)는 지난 50년 7월 보도연맹원으로 소집돼 동네 사람 15~17명과 함께 마산형무소까지 끌려갔으나 부인 변정씨(76)와 가족·친지의 온갖 노력에 의해 학살을 면했던 사람이다. 물론 김씨 말고도 일제 때 면장을 지냈던 김면장 등 5명이 풀려났지만 지금은 김씨만 유일하게 생존해 있다. 곡안마을의 보도연맹 피학살자 미망인들은 김면장이 일러준 날짜에 맞춰 제사를 지낸다.

“그 사람들을 보면 항시 죄스런 마음이 들어. 나는 살아났으니까... 죽지 못한게 미안하지.”

김씨가 진전지서의 보도연맹원 소집에 응한 것은 50년 7월 15일 오후 1시쯤. 김씨는 이날 아침부터 오서리 다리밑에서 순경의 지휘에 따라 소방대 방위훈련을 받고 있었다. 어느 때처럼 점심시간이 되자 순경은 청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소방대 청년들을 해산시킨 것을 안 지서장은 노발대발했다. 당장 다시 소집하라는 것이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보도연맹원들을 모두 붙잡아 마산형무소로 보내기로 돼 있었던 것이다. 진전지서의 강모·박모 등 순경들은 다시 각 마을마다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했다. 진전면에서만 70여명의 청년이 지서 앞에 모였다. 여름이라 대부분 땀에 절은 삼베바지 차림이었다. 대충 모일 사람이 다 모인 것으로 판단되자 갑자기 경찰관들이 총을 들고 이들을 포위했다. 그리고 화물트럭에 이들을 모두 태웠다.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 직감적으로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몇 달전 학교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죄가 있거나 지서에 잡혀간 적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라”고 했을 때 순진하게 손을 들었던 게 화근이었다. 모든 죄를 삭감해 줄테니 보도연맹에 가입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그냥 좋은 것인 줄로만 알았다. 형이 아우에게 가입을 권유한 경우도 있었다. 해방 후 건국운동을 하면서 뼈라 한번 안붙여본 청년이 없었던 터라 동네

청년들은 모두 가입대상이 됐다. 트럭에 실린 김씨는 그길로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 형무소는 마산·창녕·함안 등지에서 잡혀온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감방은 들어갈 데가 없어 앞마당에서 며칠을 보냈다. 맹벌이든 비가 오든 상관없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모른다. 어느날, 함께 들어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감옥을 빠져나갔다. 김씨가 있던 감방에는 15명 중 2명만 남았다.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살았다”면서 즐거워했다.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편에 섞이게 유리할 것 같았다. 김씨는 간수에게 “내 이름은 왜 안부르느냐”며 소리를 쳤다. 간수는 원인 모를 웃음을 짓고는 그를 남겨두고 문을 잠겼다. 그러나 그때 나간 사람들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았다.

[창포동 해안의 목격자 윤씨의 증언]

윤모씨(69·마산시 합포구 창포동)는 당시 스무살이었다. 당시 그는 철도경찰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전쟁이 나고 한달쯤 됐을까. 아침 출근길에 만난 친구가 “오늘 시민극장에 모여 떠 메고 군대간다”고 말했다. 그게 보도연맹원 소집이었다. 국제극장(현 강남극장)에도 소집을 했다. 그때 끌려가 죽은 친구들만 해도 12명이다. 군에 입대해 전사한 친구가 8명이었는데 그보다 많은 숫자가 아군과 경찰에 의해 죽은 것이다. 처음 소집 후 20여일이 지난 어느날 점심 무렵이었다. 밥을 먹으러 창포동 집에 왔다가 병원을 향해 나서는 데 갑자기 GMC트럭이 줄줄이 해안가로 들어왔다. 여느때처럼 동양주류 건물 벽에 피난민들이 죽기엔 채 누워 있었는데 헌병들이 이들을 일으켜 쫓아버렸다. 트럭이 열 몇대는 죽히 돼 보였다. 트럭에서 짚으로 만든 병거지를 쓴 사람들이 내리는데 모두 손을 뒤로 묶었고, 앞 뒤 사람의 허리에도 로프가 묶여 있었다. 옷은 모두 파란 죄수복을 입었던 것 같았다. 그때 옛 유원회사 앞 뱃머리에 미제 상륙함(LST) 두척이 왔다. 1개 연대병력이 탈 정도로 큰 배였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은 곧장 LST에 옮겨 탔다. 나중에 들으니 갯바다에서 총살 수장당했다고 했다. 갯바다까지 끌려갔다가 천우신조로 살아 나온 선배가 있어서 그 내용은 잘 안다. 철도병원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李)씨였고 수영선수였다. 윤씨도 그에게 수영을 배웠다. 50년대 말 부산에서 윤씨가 대학에 다니던 중 우연히 그를 만났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군인들은 오랏줄을 묶은 채 사람들을 발로 차서 바다에 처넣은 후 무차별 총질을 했다고 한다. 물위로 머리를 내미는 사람은 집중사격을 받았다. 그때 윤씨게도 그의 손을 묶은 오랏줄에 총알이 명중했다. 물속에서 허리에 묶인 줄을 풀고 LST 밑으로 숨어 들어 키를 잡았다. LST는 그후로도 한참동안 바다 위를 빙빙 돌면서 총질을 했는데, 상황이 끝난 후 군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헤엄쳐 설진리 해안에 닿았다. 그리고 밤새도록 걸어서 진동의 집에 도착했고, 다시 잡히지 않기 위해 부산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그는 윤씨보다 일곱 살이 많았는데, 평생 빨갱이 취급을 두려워하며 살다 작년에 부산에서 숨졌다. 윤씨는 이 증언을 하면서도 한사코 “아직은 밝힐 시기가 안됐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당시 극우단체와 경찰 관계자들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신문사가 어떤 번고를 당할 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영문도 모른채 젊은 남편을 잃고 평생을 수절하며 살아온 미망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을 빼앗기고도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온 그들 미망인마저 죽고 나면 누가 그 원혼을 풀어줄 것인가.

위의 증언들은 1천6백여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

고 있다. 또한 보도연맹원에는 마산중·마산상고·마산여중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보도 내용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시내 300여 중퇴생...보려서 복교책강구”

시적인 모략책동에 현감되어 공당계열에 가입하여 본의않인 과오를 범한 나머지 중퇴학 처분을 당한 학생들이 시내 馬商(마산상업고등학교) 馬中(마산중학교) 馬女中(마산여자중학교)만하여도 3백여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사상선도와 아울러 과오를 청산하고 복교함으로써 재생의 길을 열어주고저 보도연맹 마산지부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5시 보도부장 집에서 전기 3중학교장 교감이상 보려측 간부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각학교보안법위반 중퇴처분학생전부를 관내 경찰서지서를 통하여 신원조사를 한후 동연맹에 가맹함으로써 복교키로 원만 합의를 보고 오후 9시경 폐회.(《남조선민보》 49. 12. 28)

위의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언이 있다. 그 당시 오빠를 잃은 팽상림씨(63, 부산시 문현동 거주)의 말이다.

마산상업학교 미술부 학생이던 오빠(19)는 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간 사이 세상이 흥흥해 진 줄도 모르고 당시 학생동맹에서 부탁해온 포스터를 그려줬다. 마산에서 가장 무섭다는 황형사는 혈안이 되어 오빠를 잡겠다고 설쳤다. 오빠를 찾지 못한 황형사는 바로 밑 남동생을 인질로 끌고가 잠도 안재우고 무자비한 고문을 계속했다. 겨우 16살의 작은 오빠, 온몸은 통통 붓고 흐릿한 정신으로 말도 제대로 못했다. 어스름이 깔리던 어느날 저녁 큰오빠가 돌아왔다. 산판도 위험하더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보려는 일념으로 얇게 콘크리트가 덮인 마루밑을 봤다. 연장소리를 안내려고 손으로 흙을 밤새도록 파내느라 피가 엉겨붙었지만 작업은 며칠간이나 계속됐다. 어느날 형사들이 권총을 들고 급습했다. 하필 그날은 오빠가 마루밑에서 나와 방 안에서 가까운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때였다. 혼비백산한 손님들이 활짝 열린 방을 나왔고, 현사들은 구둣발로 다른 두 방과 부엌, 2층을 오르내리며 광이며 가축우리, 번소까지 수색하고 갔다. 놀란 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됐다가 다시 흙빛으로 변하고 하품을 하는가 했더니 아사증 걸린 사람의 입으로 비뚤어져 버렸다. 아! 큰오빠는? 활짝 열어제친 양쪽 문의 각진 곳에 종이장처럼 달라붙어 있었으니...

이날 이후 큰오빠는 마루밑 토굴에서만 지냈다. 바닥에서 베어나는 지기(地氣)는 오빠의 다리 피부를 상하게 했고, 2층 양철지붕을 이용한 공간에서 지낼 때는 뜨거운 지붕을 타고 피신하기도 했다. 그때 마산의 초대제헌의회 입후보로 출마했던 김순정씨로부터 권유를 받았다.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일체의 과거를 묻지않고 애국적인 국민으로 포용하며, 사면은 물론 취직도 가려하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다. 큰오빠는 자신으로 인해 집안이 엉망이 됨을 걱정했고, 특히 작은오빠에게 죄책감을 느껴 괴로워하고 있었기에 주저없이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됐다. 오동동에서 산호동 바닷가로 이사한 우리는 큰오빠가 안전하게 된 것이 기뻐 우선 다리부터 열심히 치료를 했고, 거진 아물 무렵 1950년 4월 30일자로 공군입대를 희망하며 이력서를 썼다. 자수하고 보려에 가입하여 충실한 국민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글이 상벌란에 적혀 있었다.

보도연맹 소집날. 배를 잃은 오빠에게 “참고 어서 갔다오너라. 열성을 보이면 빨리 취직

이 되거나 공군입대도 가능해 질런지...” 하는 아버지의 재촉을 뒤로 하며 큰오빠가 손수 지어 만든 파란색 하복(교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경남도민일보》 99. 9. 14)

1960년 국회 조사단이 다녀간 후 6월 12일 마산상공회의소에서 유족회가 정식 발족됐고, 8월 27일 마산역 광장(현 중앙동 삼익아파트 자리)에서 열린 위령제에는 1000여명의 유족이 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울산

울산은 경남에서 분리되어 울산광역시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때에는 경남 울산군이라고 불려졌다. 현재 이 지역은 현대중공업단지 등으로 대규모 중공업 단지 형성으로 외지인들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전쟁 때에도 울산은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는 것은 외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토착민들만 그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여기서 울산 지역의 전체적인 민간인 학살을 조명하기엔 역부족이지만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사실만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1960년 ‘양민학살 사건 진상특별위원회’의 ‘증언청취 속기록’과 각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 등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1960년도 한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바닥케는 蔚山良民虐殺 目擊者를 喚問해

- 8회 걸쳐 869名 죽었다고 證言

부산지검에서는 6 25 때 울산군에서 870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이에 따라 27일 하오에는 그 당시 울산경찰서 운전수였던 김해진(金海鎭, 40)씨와 이정희(李正熙), 조광희(趙光喜)씨 등을 증인으로 환문하였다. 이들 증인과 3천명에 달하는 유가족들에 의해서 밝혀진 울산민간인학살사건은 다음과 같다.

◇ 6 25 때 서장이었던 조정민(趙廷昊)씨, 사찰계장 조경래(趙慶來)씨, 형사반장 백인규(白寅圭)씨, 사찰형사 임병문(林炳文)씨 등과 모 CIC대원, 모 청년방위대원들은 83년(1950)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경까지 7, 8회에 걸쳐 청량(靑良)면 栗盤, 頂谷 및 溫陽면 大雲리 산골짜, 熊村면 大福리 산골짜 등에서 玉리 朴星容씨 외 869명을 학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당시 시체운반자인 李正熙, 金海鎭 양씨와 목격자인 沈作支, 昔千德 양씨 그리고 학살자 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두)東면 泥田리 李靑道씨 등의 증언으로 사건 전모가 밝혀진 것이다(《부산일보》 1960. 9. 28).

한결같이 虐殺證言

- 地檢서 蔚山現地도 調査

울산민간인 학살사건을 조사중에 있는 부산지검에서는 28일까지 세 사람의 증언을 청취했다. 한결같이 870명을 학살했다는 증언을 들은 검찰에서는 29일 泥田부락 뒷산골짜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李靑道, 李健씨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증언조사를 끝내고 나면 현지를 검증하는 한편 3천여 명의 유가족들에 대한 증언도 청취할 것이라고 한다(《부산일보》 1960. 9. 29).

그때 署長 趙氏 喚問?

- 蔚山虐殺, 趙前 査察主任이 否認해

蔚山민간인학살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 부산지검에서는 18일 상오 6 25 당시 울산경찰서 사찰주임 趙慶來씨를 학살혐의로 환문하고 있다. 조씨는 823명의 학살자유가족들이 증언한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그 당시 서장 趙廷昊와는 야산대를 사형에 처한 것이라고만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제2단계로 趙前 서장을 소환할 것이며 양 조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학살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민간인과 대질시킬 것이라고 한다(《부산일보》 1960. 10. 18).

이 보도에서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는 경찰과 CIC(방첩대) 그리고 지역 우익단체 등이 주동하여 저질러진 사건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내용에서 한 개인이 임의로 학살했다는 것보다 조직적이며 많은 기관들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 1960년 국회진상 활동과정에서 유족들의 증언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60년 6월 5일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위원회)는 경남도지사실(회의실)에서 최천(경남반장, 통영군)의 2명의 국회의원과 다수 유족들이 참석하여 그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먼저 오용수(吳龍洙)의 증언 내용을 들어보자. 그는 학살된 민간인들의 명단을 갖고 나와 국회의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위원장(최천) : 말씀 하세요.

○증인(오용수) : 여기 명단에는 500여명이 있는데 6.25사변에 보도연맹을...7월 초순경에 각 보도연맹원들을 불러냈습니다.

○위원장(최천) : 전부 보도연맹입니까?

○증인(오용수) : 보도연맹이 대다수입니다. 그때 점심 벤도(도시락)를 싸고 삼을 가지고 오라 해서 지서에서 삼하고 점심을 실고 갔는데 행방이 없습니다. 그 당시 경찰서장은 조정호, 사찰계장은 조경래씨인데 현재 도경 경비계장으로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사건이 있는 후 유가족 800여명이 모여서 경찰서에 가서 농성을 하고 그 당시 죽은 명단을 내놓고 죽은 장소를 밝히라고 하니깐 경찰서에서는 우리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러나 그 죽은 사람들이 명단이 있느냐 하니깐 명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내줄 수가 없다. 그러나 국회조사단에서 내놓으면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장소도 안 알려줘요. 그래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최천) :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소위 말하자면 보련이 아니고 양민이 죽었다 그 말씀입니까?

○증인(오용수) : 네.

이 증언에서 울산지역은 주로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살된 사람들은 주로 밤에 사려졌어 어디에 매장되었는지 죽은 날짜까지도 모른다고 오용수씨는 추가로 증언했다. 이어서 그의 증언 내용을 들어보면 군정보대에서도 학살에 직접 개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박상길 위원 : 그 당시 군대는 여기에 관계가 없었습니까?

○증인(李文祚) : 우리는 그것 모릅니다.

○박상길 위원 : 그 당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까?

○증인(吳龍洙) : CIC가 있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 CIC가 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증인(이문조) : 모릅니다.

○박상길 위원 : 현재 명단이 몇 명입니까?

○증인(이문조) : 580명입니다.

○조일재 위원 : 판곳에서는 서류에 보련도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울산은 특수하게 보도연맹과 양민이 섞여 있다고 그러는데...그러니깐 이런 사람들에 전부 휩쓸려놓면 취급하기 곤란합니다. 그때 계엄이고 군인 와가지고 했을게다 그것인데...그때 살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증인(오용수) : 전연없습니다.

그때 유족들은 보도연맹원에 가입했다라는 이유로 학살된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지만, 국회의원들은 "보련관계가 태반인 모양인데...우리가 책임 맡은 것은 양민학살사건인 것이에요" 라고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말하겠지만 대부분의 보도연맹원들의 학살 사건은 축소되거나 자료조차 찾을 수도 없었다. 특히 유족회에서 조사하여 제출한 '양민학살 피해신고서'는 경남 전 지역이 빠져있다. 이는 대부분 보도연맹원들이라는 이유로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울산 지역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유족들의 증언을 추가로 들어보자.

○증인(오용수) : 민간인 추력으로 실어서 사형을 했다고 하니깐 그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최천) : 그 사람을 찾았소?

○증인(오용수) 못찾았습니다.

○증인(이문조) : 내 아우가 죽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 어떻게 끌려갔소?

○증인(이문조) :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경찰로 갔습니다.

○증인(오용수) : 형이 자서로 오라고 치도 역사를 하니 오라고 지서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증인(李權) : 부친을 이입낙이라는 형사가 와서 다리고 갔습니다.

○박상길 위원 : 그러면 경찰관이니까 살찰계에 알아보면 될 것 아니요?

○증인(이건) : 상부의 지시가 없으니까 조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박상길 위원이 '울산은 보련이 태반인데.....우리가 책임 맡은 것은 양민학살사건'이라고 말하자 증언하는 유족들은 왜 보련에 가입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증인(이문조) : 그 당시 면장하던 분이 미군정 당시에 혼란기에 따라서 좌익계에 있는 사람들이 농민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좋다고 그러니깐 들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좌익계열이라고 해서 총퇴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농민조합에 들었던 사람

을 전부 강제로 보련으로 가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정권이 수립되고...

이렇게 이문조씨의 말에도 의원들은 양민들의 학살을 초점을 갖고 말했는데, 주로 거창이나 함양, 산청 등지의 예를 들면서 보련관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조일재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의논할 때에는 거창 함양 산청 통영 몇 개에 국한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자면 울산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조사 활동은 여러 가지로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족들은 그 당시의 책임자와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 증인(이문조) : 그 당시에 백인규 임병문 두 사람이 원한입니다.

○ 조일재 위원 : 백인규는 동래구에서 자유당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 증인(이문조) : 그때 사찰계 형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 손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임병문이는 아미동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자 수는 869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겠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한다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6) 진주

1949년 12월 8일 보도연맹 진주 지부 결성 이후로 1천여명 이상의 연맹들을 가입시키고 한국전쟁과 동시에 대부분 학살했다는 것이다. 진주시와 붙어 있는 진양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 진양군도 보도연맹 진주지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명석면사』에 나와 있는 진주시 명석면의 우수리, 용산리, 관지리, 신촌 마을 등의 보연연맹원들 학살을 정리하였다.

명석면은 진주의 보도연맹원 대학살의 진원지였을 뿐만 아니라 명석면민 중에서도 보도연맹사건과 연루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왕지리 주민중에는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박봉규를 비롯해 박종환과 박두영 등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학살됐다. 박봉규는 일제 때 북노윤 면장이 세운 강습소에서 야학교사를 한농촌계몽운동가였다. 또 계원리에서는 마을이장이 보도연맹원으로 살해되었고, 관지리에서는 하용선과 외지에서 들어온 허주, 외울리에서는 심상엽과 이덕룡, 신기리에서는 강기태 등이 보도연맹원으로 이 때 학살되었다. 용산리 조비마을의 박우회(64)씨는 “진주지역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은 우수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용산리 등에서도 벌어졌으며 이때 진주의 3.1독립운동가 박진환 선생도 학살돼 지금까지 우리 문중에서는 그의 유골을 못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환은 해방정국 당시 인민당 진주지부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좌익분자로 검속돼 보도연맹원 사건 때 학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이 사주하는 한국군 정보 또는 보안요원으로 알려진 CIC 또는 CID대원이었다. 이들은 그동안 국군이라고만 막연히 알려져 왔는데 그들의 정확한 신분은 바로 진주과전대 CIC, 다시 말해 육군 특무대원들이었다. 일설에는 CID라는 말도 있으나 명석면에서의 학살집단은 CIC였다. 이들 CIC나 CID를 정확히 개념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방첩과 정보를 다루는 특수사찰기관을 말하며, 육군 특무대, 육군 범죄수사단, 미군 지휘계통의 첩보대 등을 말

한다(현재는 CID를 주한미군 범죄수사대의 약자로 사용하고 있다). 이 CIC대원을 지휘한 인물은 진주특무대장 탁성록 소령이었다. 보도연맹원의 학살은 CIC대원, CID대원, MP(헌병대원), 경찰 등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진주의 경우 CIC에 의해 저질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석면 학살의 경우는 증언을 통해 육군 특무대였음이 확인되었다. 당시 진주헌병대 일등상사였던 강문식(관지리 신촌거주)씨는 명석면 학살을 비롯해 진주일대에서 저질러진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사건의 총지휘·명령자가 진주특무대장 탁성록 소령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지역의 학살이 헌병대에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진주의 경우 헌병대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당시 진주일대에서 만연한 학살이 진주과전대 CIC의 소행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탁소령이 다른 부정사건과 연루되어 헌병대의 조사를 받고 불명에 제대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1950년 7월말의 명석면은 인간이성이 상실된 살육의 땅일 수밖에 없었다. 보도연맹원들은 전쟁이 터지자 아직 인민군에 점령되지 않은 남부지방에서 현지 경찰과 군부대의 동원명령으로 각 경찰서의 유치장과 형무소 등에 수감되었다. 신문과 라디오가 드물었던 시절이라 전쟁의 소식을 모르고 있던 연맹원들은 당국의 동원명령에 따라 제 발로 찾아 들기도 했다. 연맹원들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반공교육인 줄 알고 소집에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연맹원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우익인사들이 강제로 예비검속해 끌고 가기도 했다. 소집에 모두 지서에서 형무소로 이동된 명석면의 보도연맹원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 이들 보도연맹원들은 진주 근교의 산골짜기 등에서 무더기로 학살당했다. 특히 명석면의 대학살 장소로 가장 명백하게 밝혀진 곳이 있는데, 우수리 갯골 안의 밀밭골이 그곳이다. 그 이유는 명석면의 대학살을 알려주는 유일한 문헌근거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수리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었고, 또 당시의 학살을 목격했던 주민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석면의 대학살도 바로 이렇게 벌어졌다. 명석면은 진주와 가깝고 산간지역에 위치해 있어 깊고 인적이 드문 골짜기가 많았다. 사실상 진주형무소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산간 골짜기는 명석면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학살장소가 이곳에서만 5곳이나 발생되었는지도 모른다. 진주에서 붙잡혀 온 보도연맹원들은 우수리 갯골을 비롯해 우수리 송고의 콩밭골(일명 송곡의 골목등), 용산리의 고개인 용산치, 관지리 삭평 건너 닭죽골과 신촌의 화령골 등에서 처참하게 죽었다. 이들은 당초 진주형무소의 옥사와 진주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감돼 있었으나 인민군의 공격으로 진주함락이 임박해지자 명석면의 골짜기로 끌려나와 무더기로 학살됐다. 이것을 가리켜 후세 사람들은 ‘명석면의 대학살’이라고 말하고 있다. 명석면민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한국전쟁 당시 명석면에서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당했던 장소로는 우수리의 산골짜기(갯골)와 판문북동 접경지역인 송고 앞 골짜기(콩밭골), 관지리의 신촌 뒷산(화령골)과 삭평 앞 닭죽골, 그리고 용산리 일대(용산치) 등 5개소로 집약된다. 이를 크게 3개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명석면 우수리의 대학살

우수리는 보도연맹원 학살 장소로 가장 정확하게 제시되는 곳이다.

당시의 상황을 증명하는 유일한 문헌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수리라는 지명이 표기돼 있었다. 1950년 9월 3일자 북한측에서 발생한 신문 중의 하나인 『해방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이 7월 31일 진주를 점령하기 전날 명석면 우수리 뒷산에서 진주에서 차량에 실려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기관총으로 집단총살을 당했다고 당시의 목격자인 어느 명석면민의 인터뷰까지 덧붙여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이 『해방일보』에는 명석면뿐만 아니라 산청과 하동 등 진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보도연맹원 학살사건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는 인민군을 따라 종군한 북한 『해방일보』의 특파원 송진근 기자가 진주발로 송고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진양군 명석면 우수리에 사는 목격자 서희열씨의 말을 들으면 “우리 인민군이 진주하던 전날밤 진주에서 20리 떨어진 진양군 명석면 우수리 뒷산에서는 애국자들을 마치 북어집짜를 싣듯 세겹으로 트럭에 얹어 싣고 그 위에 놈들이 타고 앉아 와서 늘어세운 다음 기관총으로 소사를 하였는데…”(1950. 9. 3. 『해방일보』)

그러나 이 기사는 비록 학살을 목격한 현지 주민과 구체적인 지명, 그리고 취재기자의 이름까지도 밝혀져 있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지금까지 보도연맹원학살을 규명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기사는 남한에 의해 자행된 당시의 보도연맹원 학살을 말해주는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 용산리 학살

용산리 용산치의 학살은 명석면에서 발생한 학살중에서 가장 대규모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오미리 신기식(56)씨는 “용산고개의 학살은 용산치에 있는 3개의 골짜기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바로 용산고개에서 학살된 사람들은 모두 7백18명이었다 한다. 용산치에서 대량살육된 희생자는 죄수복장(군복하고 비슷했음)을 입고 머리를 모두 뺏박 깎은 것으로 볼 때 진주형무소에 수감중인 미결수나 복역수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보도연맹원인 대평면 사람 송00가 살아서 돌아갔다고 전해지고 있고 수곡면 사곡리에서 보도연맹원으로 끌려와 사망한 하영0의 시신을 찾은 곳도 용산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용산고개로 가던 형무소 차량중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우수리에서 학살된 희생자들이 모두 보도연맹원들이었다고 한다.

● 명석면 관지리

명석면 관지리의 대학살은 닭죽골과 화령골, 2개소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관지리의 학살은 삭평 앞 닭죽골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 화령골로 이어졌다. 화령골에서 있었던 관지리 학살의 직접 목격자 관지리 신촌마을의 구자영(66, 전 명석면장) 씨의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1950년 7월말로 기억되는 어느날 오전 11시경 신촌마을에 있는 구씨는 난데없는 차량들이 멀리서 행렬을 지어 관지리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신촌마을 앞에서 멈춰서더라는 것이다. 이윽고 2대의 버스에서 내리는 1백여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줄에 묶여 있었고 머리에는 용수(얼굴가리개)가 씌워져 있었다. 그들은 곧 관지리 신촌의 화령골짜기로 들어갔고 얼마후에는 콩볶는 듯한 굉음이 메아리쳤다.

그런데 관지리에는 모두 3대의 버스가 들어왔는데, 화령골의 2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대의 버스는 화령골에 못가 관지리 삭평마을 부근에서 멈춰 여기서 내린 40~50명의 탑승자들

이 마을 건너편 닭죽골에 들어가 학살되었다. 박종표씨는 삼종질 박두영과사촌 자형 이원수등을 닭죽골에서 시신을 찾았다고 한다.

● 명석면 신촌 마을

경남 진양군 정촌면 관봉리 절골 마을의 ‘도살이’양반(도로 살아났다고 하여 붙은 별명, 본명 정영식, 1989년에 67세)이 사는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이 소집된 것은 1950년 음력 6월 초 하루였다. 이들은 개양에 있는 정촌면 지서에 갔다가 진주경찰서로 넘겨졌고, 다시 진주형무소로 옮겨졌다. 형무소 안에는 5백여 명이 갇혀 있었다. 열하루 후 이들은 진주 부근의 명석면 신촌 골짜기에서 학살되었다. 두 명씩 묶어 한 차에 백몇십 명씩 태웠는데, 한 차에 경찰이 7명이었다. 진주에서는 신촌 골짜기 외에도 남강과 진양군 문산 뒤의 예티 골짜기에서도 학살당하였다. 이처럼 진주시 명석면(그 당시 진양군)에서는 진주형무소 수감자 500여 명과 진주시·진양군 보도연맹원 718명 등 총 1,218명이 집단으로 총살된 것으로 보인다.

7) 진영

진영의 민간인 학살 사건은 학살 책임자들이 처형이나 구속되었던 사례이다. 이 지역의 사례는 별도로 조사보다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 사건은 드물게도 학살책임자 중 한명이 재판에 회부돼 사형을 받은 일이 있었다. 바로 김해 진영 강성갑 목사의 학살책임을 물어 김병희 진영지서장이 총살됐던 것이다. 그러나 진영 학살사건의 진짜 책임자는 해군과 육군의 특무대(CIC)였다. 전국의 예비검속이나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직접 지휘한 것도 CIC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인이나 학살 책임을 지고 사형집행이 이뤄진 점은 특이한 일이다. 그것은 바로 목사'가 희생됐기 때문이었다. 김해 한얼고등학교의 창립자이기도 한 강성갑 목사가 학살되자 미국 선교단체와 UNKRA(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나서자 이승만 정권은 부랴부랴 학살관련자들을 구속시켰다. 김병희 지서장과 하계백 부읍장, 의용경찰(청년방위대) 강백수·강치순 등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김병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풀려나왔다.

국회 조사기록에서 당시 여동생을 잃었던 김영봉씨(작고, 당시 진영유족회 고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1심 구형이 전부 사형이었는데 지서 주임만 사형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10년 징역에 3000만환을 김중원(당시 계엄민사부장)이한테 갖다주고 한달도 못되어서 형집행정지로 나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사람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김영봉씨는 여동생 영명씨(당시 23세, 진영여중 교사)를 잃었지만 스스로도 학살의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생존자이다. 그의 증언을 좀 더 들어보자.

“지서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10여명 있었는데…진해 해군 G2 대장이 진해까지 가서 물

어블 말이 있으니 갑시다 그래 트럭을 타라고 해서 타고 갔습니다. 15리 가량 가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걸었습니다. 거기에서 내릴 때부터는 밧줄을 가지고 두사람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100미터 밖에 안떨어진 산에 올라가서…”

그는 이곳에서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고 살아났다. 장소는 창원군 동면 덕산고개였다고 한다. 그의 여동생이 학살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내가 안죽고 도망갔다는 걸 안 그들이 집안 식구를 데려다가 고문하면 틀림없이 나올게다 해서 여동생을 데려다가 죽인 것이지요.”

당시 진영유족회장이었던 김영옥(79.현 부산경남유족회 고문)씨는 이에 대해 “영명씨는 미모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인간됨됨이로 주위의 칭찬이 자자했던 교사였다”면서 “지서장 김병희가 그녀의 미모를 탐내 오다가 오빠를 빌미로 잡아가 강제로 능욕하고 학살해버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옥씨 또한 당시 독립운동가로서 추앙받던 부친을 잃었다. 그의 부친 김정태 선생은 3.1독립만세운동으로 2년간 옥고를 치렀던 민족자본가였다고 한다. 당시 청년방위대 간부가 이사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자동차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학살을 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영에서만 251명이 학살당했다. 당시 김영옥, 김영봉씨를 주축으로 한 유족회는 이들의 유골을 모두 발굴, 진영읍 설창리 국도변에 합동묘를 만들었다. 그러나 5.16쿠데타와 함께 이 합동묘는 부관참시를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헌병들이 들이닥쳐 묘를 마구 파헤쳐 버린 것이다. 두 김씨를 비롯한 유족회 간부 4명은 구속됐다. 학살을 자행한 군 관계자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국회 조사기록에는 이렇게 돼 있다.

○조일재 의원=그 당시에 CIC대장과 지서 주임은 각각 불법살인죄로 사형집행을 당했지요.

○증인(김영옥)=CIC대장은 안당했습니다. 당시 CIC과전대장은 이명규입니다. 그때 계급은 중위입니다. 지금 소령이랍니다. 서울에서 정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군법재판에 회부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최천)=그 때 군대에서는 몇사람이나 처벌당했는가.

○증인(김영옥)=군대에서는 한사람도 처벌을 안당했습니다.

8) 양산

양산 지역의 학살시기는 50년 7~8월쯤이고 희생자는 35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의 내용은 《부산일보》 김기진 기자의 취재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아주 이른 새벽이었지요. 이웃집 아저씨가 지서에서 ‘삼을 들고 오라니 서둘러라’고 고합치기에 허겁지겁 나갔는데 그게 저승길인줄 누가 알았겠어요.” 1950년 경남 양산읍에 살다 보도연맹 학살로 남편을 잃고 부산 사하구 피정동 자매여숙요양원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유모(75.사진) 할머니.그의 인생은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된 한맺힌 삶이었다. 그때가 7~8월

계였다.

삼을 들고 문을 나선 남편 김모(당시 34세)씨는 그 길로 경찰에 붙잡혀 읍내 목화창고에 며칠간 갇혀 있다 학살을 당하고 말았다.

“아침마다 밥을 싸들고 목화창고를 찾아갔는데, 어쩌다 하루를 빼먹고 다음날 갔더니 창고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총을 메고 창고를 지키던 경찰까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마침 장날이었습니.”

유씨는 남편이 왜 죽어야 했는지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목화창고에 끌려가기 전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누가 뭐라 모함했지는 몰라도 영문도 모른 채 불려갔지요. 그런데 금방 풀려나기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 김씨는 논 10마지기를 일구며 살던 그저 평범한 농부였다. 그런데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신분보장이 된다고 선전하는 당시 양산 경찰서장의 말만 믿고 도장을 찍었던 게 화근이었다. 김씨에게는 남동생이 셋 있었는데, 그들은 가입비를 마련못해 연맹에 가입하지 못한다. 유씨는 남편의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시동생을 통해 뒤늦게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심지어 남편이 목화창고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보도연맹 가입 때문에 죽을 것이라곤 상상조차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목화창고에 갇힌 사람들이 처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하나, 둘 빠져 나오기 시작했다. 유씨는 남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시택을 찾아갔다. 하지만 시택에서도 설마했던지 뇌물을 주고 빼내는 것은 달갑지 않게 여겼다. 한번은 창고에 갇힌 사람들의 찬거리를 구하러 장터에 나온 남편에게 “이러지 말고 도망치세요” 했다가 “아무 죄도 없는 내가 왜 도망을 가”라며 되레 야단치는 남편을 보고 아무일 없을 거라 생각했단다.

“그런데 죽기 이틀전 찾아 갔을때 평소와는 달리 그만 오라고 고함을 쳐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마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죽기 전날 마침내 시택에서도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던지 소를 팔아 남편을 빼내자는 말이 나왔었다. 김씨를 포함 보도연맹원 350여명이 학살됐고 유가족의 통곡소리가 양산 읍내를 뒤덮었다. 인근 사배골짜기에서 학살당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그곳에 가보려 하질 않았다. 빨갱이로 몰리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유씨도 남편 시신을 지척에 두고 어떻게 손써 볼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심적 충격으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눈을 떠보면 엉뚱한 곳에 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헛소리를 하고…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갓 8개월된 딸을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했다. 학살 10년만인 1960년 4.19가 터지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배골짜기를 찾아가 유골을 발굴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치유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고 말았다.

“깊이 묻혀 있지도 않았어요. 손으로 흙을 슬슬 헤치자 유골이 쏟아져 나왔으니깐. 얼마나 죽었던지 유골이 겹겹이 쌓여 있더군요. 통도사 스님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유씨는 현장에서 남편의 허리띠를 찾아낼 수 있었다.⁸¹⁾

9) 산청

산청군 시천·삼장면은 1949년 7월 18과 22일 양일간 1,00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금서면에서는 1951년 2월 8일에 460명이 군에 의하여 학살되었다. 지난 1999년 10월 8일부터 2000년 4월 7일(6개월)에 걸쳐 산청군 의회에서는 시천·삼장면 양민학살사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반을 구성 활동한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조사에서 유가족과 군의원 등이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그 당시에 진행되었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고 1960년 국회진상조사 내용을 덧붙였다. 지난 99년 10월 11일 시천·삼장면 민간인학살사건 관련 유족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 정맹근(유족회 회장)

당시 학살을 자행한 군부대나 살해된 인원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나 MBC에서 방영한 것을 포함한다면 지리산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시천과 삼장에서 1,000여 명은 되는 것으로 알려, 현재 유족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90명 정도 된다.

○ 이통주(시천면 내공)

삼장면 관내에서 죽은 사람이 현재 5~6명만 들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몇 백 명은 된다고들 한다. 현재까지도 피해 당할까 봐서 밝히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아는 사람들도 말을 안하려고 합니다. 유족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천지서에서 그 당시 빨갱이 했다는 사람들이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분들이 무슨 상상이 있어서 공산주의를 했겠느냐고 했다. 유족들 스스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고 증인을 구하고 해야 합니다. 금서는 상복입고 국회가고, 거창은 면장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태호씨가 노력을 해서 그 당시 대대장인 조재미를 찾아내었습니다. 전화로 3연대가 사망자인 것을 양심선언 하라고 하니 40~50년 지난 것을 왜 그러느냐고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증언해 줄리는 없지요.

○ 이재천(유족회 총무)

우리가 조사해둔 것은 49년 7월 18일 신천초등학교에서 집단학살했고 49년 7월 22일 덕산 원리 윗동산에서 학살한 2가지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두 지역인 시천·삼장면에서 두차례 학살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덕산·신천초등학교 민간인학살 사건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김상수(시천면 내대리 57세)

저는 그 당시 원리 뒷산에 2집이 살고 있었는데 날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여름철인

데 지금의 우농원 근처에 50~60명의 주민을 군인 1개소대 병력이 데리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구덩이를 파게 해서 2열로 세워서 첫날은 총으로 죽였으며 그 뒤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착검한 총으로 찔러 죽이고 때로는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60~70m 지점에서 보았으며 청장년 층과 나이 많은 분들과 여자들은 있었으나 아이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3연대 8중대가 출동을 해 가지고 가다가 곡점 아래에서 1~2명을 남기고 모두가 전사한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아이들 말고 골짜기 사람 전부가 공비라고 보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 최영렬(시천면 원리 77세)

당시 시천면 산업계에 근무하였고 50년도에 있었던 외공 뒷산의 건(1951년 2월경 사건)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데 175명의 밥을 군인이 해달라고 했고 외공에 가서 점심을 시켜두었더니 조금 있다가 그만두라고 하고는 차에 싣고온 민간인을 연전에 진주 MBC가 방영한 장소(시천외공뒷산·소정골)에 끌고가 총살하였으며 그때 끌려온 사람 중에는 어린아이를 업은 여자도 있었으며 민간인을 싣고 온 차는 서울시영버스였고 김종원이란 사람이 장갑차에 타고 있었다. 이때 총살된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안다.

3연대 중대본부가 지금의 덕산중고등학교(당시 초등학교)에 있었고 정보부라는 것이 구장터(사리마을) 산업조합 창고에 있었는데 잡아와서 수용한 인원은 200여명이었는데 살아 돌아간 사람은 몇 명도지 않았을 것이다. 설통바위 모퉁이에서 죽은 군인 수는 유골함 37개를 만들어 달래서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전사자는 37명이 아닌가 한다. 그 당시 8중대장은 지중위이고 대대장은 영관급이란 것밖에는 모르고 정보부장은 김시곤 대위이다.

○ 정맹근(유족회장)

어려서 잘 모르나 제사지내는 날짜를 가지고 보면 설통바위 모퉁이에서 국군이 전몰한 일자 49년 7월 18일이 됩니다. 덕산초등학교에 사람들을 모을 때 장경상씨라는 분이 그곳에 갔다가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남로당, 북로당 나오라 하니깐 그것이 무어나고 묻자 남쪽에 살면 남로당이지 뭐냐고 해서 이 지역이 남쪽이니 남로당이라고 나간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은 20~30명 되는 것으로 안다. 7월 22일날 중산리 신촌과 동당마을에 불을 질렀다고 하며 너른바구부터 신천마을까지 불을 지르고, 5~8명을 죽이고 마을 앞근처에서 또 2명을 죽였다고 한다. 제가 어릴 때 들기로는 반천마을에는 7월 22일에 18명이, 삼당마을엔 9명이 제사가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유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다음으로 가막골 양심학살 사건은 60~70명 정도 학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족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영환(삼장면 평촌거주 68세)

49년 음력 11월경 그 당시 3연대라는 부대가 있었고 내 옆집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중대장이 살고 있었는데 사건이 있던 날 우리마을 동민들은 똥매(뚥매)산에서 진지구축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트럭 2대에 사람을 가득 싣고(어디에서 잡아왔는지 모르는 70~8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와서 “가막골”이란 곳에서 칼로서 학살을 하였다. 그 때 싣고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고 그때 우리 마을 사람은 11명이 죽었는데 학살 직후에는 통제가 심해서 시체를 찾아서 매장할 수도 없었는데 그 뒤 군인이 철수 후 가보았더니 시체가 엉망이 되어 있었고 한 구덩이에 6~7명의 시체가 있었다.

우리지역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시천에서 학살한 것보다는 한두 달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학살된 사람들은 당시는 오늘날과 달라서 서로의 통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간에 면식이 있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인근의 시천, 단성, 삼장면 사람이 아니었겠느냐고 생각한다. 그때 희생된 11명의 희생자 유족중에서 2명은 알고 나머지는 풍비박산이 되어 어디에서 사는지 전혀 모른다. 죽은 사람이 끌려가게 된 배경은 정보과에서 빨치산으로 있다가 전향한 시천면 외공에 살던 노정기가 군인들이 강제로 모아둔 사람들을 둘러보고 지적하면 잡아갔는데 그날 죽은 11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과에 잡혀간 사람들이다. 나는 그때 17살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키가 커서 잡혀 갈까봐 무릎을 구부려 키를 작게 하려고 뒤에 서서 꾸부렸다. 우리 마을에서 가막골에서 그렇게 죽었고 살겠다고 산으로 피난간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80여 명은 될 겁니다.

○공영준(삼장면 평촌리 거주 69세)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여순 반란사건이 난 1949년 그해 겨울인 것으로 기억하며 그해 노정기라는 사람이 군인들이 강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놀았던 박덕문(현재 소유자는 옥종택) 마당에 모아둔 주민사이를 지나면서 빨갱이에게 밥을 해주었거나 신발을 삼아 주었거나 한 사람을 가려낸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줄을 선 사이로 지나가면서 군인에게 어떤 암시를 준 것 같고 그에 따라 지적된 사람은 별도로 열을 지워 세웠다가 잡아갔는데 노정기가 어떻게 혐의자를 지정을 했는지는 군인들이 조금이라도 열을 쳐다보면 바로 총살해 버린다는 말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모르고 그날 잡아간 인원이 10여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며 가막골에서 우리동네 사람이 11명 죽었다는 것은 군인들이 몰려간 뒤에 잡혀갈 때 옷 등을 참고로 해서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 주준한 중대장의 성은 지씨였고 찰밥을 즐겨 먹었으며 당시 리장인 정태일씨는 나의 부친과는 친구였는데 매일 닭 한두 마리와 찰밥을 해다 바쳐야 했고 중대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리장(당시는 구장이라고 호칭)을 두들겨 찢습니다.

○손봉의(삼장면 평촌리 66세)

차에 가마니로 덮은 물체를 싣고 왔다는 이야기와 우리마을에 주둔하던 계급이 갈매기 하나인 김용수라는 군인으로부터 이씨(이름을 기억 못하고 계급은 김용수와 같음)가 차에 싣고 온 사람을 죽이려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잡혀간 사람들이 어디에서 취조를 받았고 감금되어 있다가 처형이 되었는지는 당시 상황이 살벌했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이영옥씨라고 한 명 있는데 그 분은 중대장에게 하루에 닭 한두 마리와 찰밥을 해주는 등 잘 해주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산에 올라간 사람들도 확고한 사상이 있었다기보다는 순사들이 취조하고 때리니까 매맞기가 싫어서 성질 급한 사람들이 올라

갔다 여순 반란사건 후에 세력이 강해지면서 낮에도 마을에 내려온 적이 있는데 노정기가 지적한 것은 그때 얼굴을 보았던 사람들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시 3연대가 우리마을 똥매(뚥매)산에 주둔을 했고 주둔 부대는 1개 중대라는 말만 들었고 얼마인지는 모르나 중대장은 마을에 기거했습니다.

○정맹근(유족회장)

삼장 평촌 가막골 건은 49. 11.13일로 알고 있고 연전에 MBC에서 보도한 건은 51년 겨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가막골 희생자 유족으로는 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재수(시천면 신천리 74세)

노정기는 하동 청암 사람으로 한국전쟁 전에 빨치산에 붙어 있다가 뒤에 자수하여 산청경찰서에 붙어 있었는데 그때 3연대 정보과에서 산에 있었으니 빨치산에 협조한 사람을 많이 알 것이라 보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 뒤 노정기는 경찰로 임명되어 근무하다 지금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연대가 들어오고 나서 3일인가 된 음력 6월 22일 날인가 빨치산이 출현했다는 정보를 듣고 출동한 군인이 탄 트럭 3대가 ‘설통바위’ 근처에서 도수로와 건너 숲에 매복했던 빨치산의 공격을 받아 차량이 전소되고 그 차에 탔던 군인이 전멸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뒤 군인이 와서 내손으로 시체를 실었는데 32명이었고 그 광경은 참혹했다. 그 때 시간은 정오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나서 군인들이 신천, 보안, 삼당 주민들을 신천초등학교에 모아놓고 그중 30여명을 줄 세워두고 M1소총을 가지고 학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시체는 물 건너편에 구덩이를 파서 대충 묻었는데 유족들이 시체를 찾아가서 현재 그곳에 유골이 없다. 그 속에서 장경상이라는 사람은 총알을 빗겨 맞아 살았는데 시체를 운반하는 사람에게 위에 얹어 둘 것을 청하여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마을에는 군인들이 집에 불을 다 질렀는데 손상대의 부인은 집에서 못나오게 하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잡아갈까 겁이 나서 나는 산으로 올라가 바위틈에 자고 이튿날 덕산으로 피난을 갔다. 내가 알기로는 부대가 원리에 있는 덕산초등학교(현재의 덕산중고등학교)에 있었고 중대는 삼장, 외공창고, 단성에 1개 중대씩이 배치된 것으로 안다.

○이재천(시천면 52세)

할아버지와 삼촌의 기일이 음력 23일인데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신천초등학교에 삼촌이 학살되니까 할아버지께서 “죄 없는 내 자식 죽이는데 나도 죽여달라”고 하니 까 “영감 죽고 싶으면 나서라”해서 쏘아 죽었다고 한다.

○유근조(삼장면 평촌리 54세)

아버지가 그곳에서 희생되셨는데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시신을 수습한 경위를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백부께서 잡혀갈 때 입고간 옷과 양말을 보고 찾았다고 하며 제사일자는 음력 11월 13일이다.

○이원상(단성 금만, 64세)

그때가 여름방학 때인데 3연대 김대위라는 사람이 근방의 사람들을 학교로 좌담회한다고 모이라 해두고 공포총을 쏘면서 전부 눈감으라고 해두고 용시를 썩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골라냈고 거기서 30여 명이 덕산으로 잡혀가 11명이 죽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잡혀갔던 사람들은 얼마나 맞았는지 어떤 사람은 그 골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도 그때 잡혀가서 죽었다. 당시 내 나이는 12살이었고 그때 잡혀간 사람들은 덕산초등학교 뒷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부친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 그때 시신은 찾지도 못하였고 그럴만한 정신도 없었으며 우리 마을은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 3연대 조재미 2대대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학살에 대한 책임과 군인 직접 학살하지 않았다고 일관하고 있다.

○ 서봉석 의원 : 산청군 의회의원이다.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특별조사반이 편성되었고 본인은 특별조사반 간사인데 피해자의 조사는 거의 마쳤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가해자 측의 증언을 청취하여 공정한 조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한다.

○ 조재미 : 조금 전에 다녀간 MBC 기자들이 당시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대대의 주둔지는 산청군청 소재지인 산청에 있었고 현지에 있을 때 나와 노군수(노재운, 1949. 6. 21~1950. 5. 6), 조명환 청년대장 등 관계기관장과 유대가 얼마나 좋았는데 주민을 죽였겠느냐. 지천풍 중위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지천풍이가 주민을 죽였으면 무슨 좋은 일 했다고 내게 보고했겠느냐? 보고하지 않으면 나는 모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람을 죽였으면 연대 정보작전주임 김시곤 대위가 죽었지. 나는 주민들을 죽일 위치에 있지 않았다. 다만, 작전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김시곤이가 죽이려는 사람도 조명환 청년대장이 살려주라고 해서 나는 살려준 사람이다.

○ 정맹근 유족회장 : 산청에서 체재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조재미 : 하도 오래 전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다.

○ 정맹근 유족회장 : 지천풍 중위는 직책이 무엇이었나?

○ 조재미 : 중대장이다. 김시곤이는 연대작전주임이고, 정해운이는 대대정보장교로 나의 부하였다. 김시곤이는 초기에는 극렬 좌익분자로 활동하다가 전향하여 군에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 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으로 안다. 후에 보안서장까지 지냈다.

○ 서봉석 의원 : 혹시 지중위가 민간인을 죽였다고 하지 않고 공비를 죽였다는 전과보고를 할 수 있지 않은지?

○ 조재미 : 그런 일은 없다. 사람 죽인 일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보고했겠나(그러면서 국방부 전사자료 복사본 1권을 내어놓고 계엄포고령을 보여주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재삼 강조하면서 공비와 내통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광주에까지 데리고 가도 죽일 것이니 현장에서 죽였는지 알 수 없다. 또 주민을 죽였으면 산골짜기에서 2~3명씩 기술적으로 처치하지 왜 수십 명을 한 장소에서 집단총살 했겠느냐? 당시에 잔인한 부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 입으로 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 입으로 말하면 큰일 나지. 아무튼 희생된 주민들의 유족에게는 가슴아픈 일이다. 군대라는 것은 부하의 잘못도 상사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나 우리부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아나 어쨌든 군인에 의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유족들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1960년 6월 2일 산청군 금서면에서 개최되었던 국회 민간인학살사건 진상조사 특위의 내용을 보면 전쟁중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례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학살 시기는 1951년 2월이고 희생자는 460명이다.

○ 박상길 위원 : 그 다음에 면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또 이것을 해서 보복같은 일이 있습니까?

○ 증인(민치재) : 일전에 거창사건이 일어나고나서 경찰서장하고 2,3차 이 문제에 대해서 무마시키고 거창사건처럼 보복행위를 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직접 보복행위를 해볼려고 했댔자 그 당시 당사자가 지금 유가족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 위원장(최천) : 당사자는 누굽니까?

○ 증인(민치재) : 군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눈앞에 안보이니까 보복은 할 수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문 이분이 여기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사실 몇명이라고 하는 거기에 밖아에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내에서는 芳谷부락에서 291명 佳峴부락에서 111명, 五峰리에서 5명, 自惠리에서 14명, 舟上리 19명, 花溪리에서 19명, 水鐵리에서 1명 계 46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4283년(1950) 정월 초이틀 날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런 행동하는 것을 본바는 없고 저도 피난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 박상길 위원 : 그러면 당시 주둔하고 있던 군대는 몇 사단 몇 연대고 그 부대에 있던 관련된 사람들을 말씀해 주세요.

○ 증인(민치재) : 군대에 대한 성명이나 그런 것은 모르겠고 듣는바에 의해서는 11사단 9연대라고 합니다.

○ 박상길 위원 : 그것이 花郎부대지요?

○ 증인(민치재) : 네. 정월 초이틀날 아침에 방곡이라고 하는 동리서 68호가 있었는데 동민들을 전원 나오라고 해서 논 바닥에 앉혀놓고서 처음에는 강연회를 한다고 선전을 해가지고 모아놓고 뺨 돌아가면서 기관총을 걸어놓고 사격을 하고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生還사람의 말에 의해서 제가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곡에서 291명이 죽었고 가현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11명을 죽였습니다.

○ 위원장(최천) : 두분에 대해서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 박상길 위원 :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오.

○ 증인(尹允景) : 음력으로 정월 초일은 날...약력으로 2월입니다. 날이 새자 군인이 동리를 포위하고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노소간 짝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이니까 저리로 가자고 데리고 가서 앉으라고 그래서 앉어어요. 그랬더니 동리에다가 불을 지르고 안탈 것은.....숫이라든지 이런 것은 뿌수고 그래도 남은 것은 몰아가고 그것입니다.

○ 위원장(최천) : 포위는 누구 포위를 했는가?

○ 증인(윤윤경) : 군이 포위했습니다.

○ 위원장(최천) : 경찰도 있었는가?

○ 증인(윤윤경) : 경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 박상길 위원 : 죽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어린애나 여자도 있었는가?

○ 증인(윤윤경) : 네. 어린애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갓난 어린애도 있었고 제발로 걷는 애는 저희 어머니를 딸아가고 그래서 싹 죽었습니다.

○ 위원장(최천) :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 증인(윤윤경) : 백한십몇명 죽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구멍이 안에서 총소리 나기 전에 었드렸던 사람중에서 20여명이 살았습니다.

○ 위원장(최천) : 그것이 무슨 부대인가?

○ 증인(윤윤경) : 화랑부대인가? 백두산부대인가 그렇습니다. 김종원이 부대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 24시간중 열두시간은 김종원이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 증인(강원희) : 西洲사건이후의 추수기인데 하계 마을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면에는 아군이 주둔하고 하계는 주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계마을 사람들은 추수하는데도 총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경찰입니다.

○ 박상길 위원 : 그 당시 지서주임이 누구요.

○ 증인(강원희) : 그 당시의 지서주임을 모르겠습니다. 소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모르겠지만 심심하면 사람을 보고 대고 봤습니다.

○ 증인(민치재) : 우리 면에서 조사한 결과 포탄 사망자가 주상에서 6명이 있고 또 한계라는 동네에서 포탄 사망자가 9명, 부상자가 4명입니다. 박격포탄을 유럽지서 뒷 산고지에서 하루 평균 4,50발 내지 백여발을 포탄을 쏘았는데 사람이 죽고 집이 자꾸 쓰러졌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한 그 두달 직전입니다.

○ 박상길 위원 : 포탄을 쏘 사람들은 군인가 경찰인가?

○ 증인(민치재) 경찰입니다.

앞의 증언을 보면 산청군 시천·삼장·금서면 여러 마을 주민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직전과 51년 2월 사이에 1천5백여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산청에서 책임자였던 사람들은 화랑부대 혹은 김종원부대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1949년 7월 18일과 22일의 경우는 '공비소탕'에 의하여 참혹하게 학살된 사례라고 하겠다. 현재 산청군의회에 파악된 각 지역별 희생자수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산청군 금서면에 대한 몇 가지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 내용은 학살 사건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살일시	학살장소	학살자수	학살일시	학살장소	학살자수
49. 6. 19	당산마을앞(단성)	2	49. 7. 18	곡점강변(시천동당)	7
7.18	신천초등학교	27	7. 18	신천마을(시천원리)	2
7. 23	보안뒷산(삼장보안)	2	7. 20	"	78
7. 23	까막골(삼장평촌)	1	7. 25	원리뒷산(시천원리)	22
7. 28	원리뒷산(시천원리)	2	7. 30	"	2
7. 31	"	2	8. 3	"	1
8. 3	백운도로변(단성)	1	8. 9	원리뒷산(시천원리)	7
9. 24	장소미상	10	11. 20	내대마을(시천)	11
11. 21	원리뒷산(시천)	9	12. 20	양당못안(시천사리)	1
50. 1. 2	까막골(삼장평촌)	9	1. 21	중산계곡(시천중산)	1
2. 13	창촌리 논(단성)	1			
총계	202명(남 192 여 10명)				

◆지리산의 눈물 1 - 그날은 1951년 2월 8일 음력으로 정월 초이틀, 설날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날 아침 산청군 금서면 가현리 뒤뜰로 소변을 보러 나온 윤한영씨(당시 20세, 가현, 부산시 남구 문현동)는 뒷산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20세였던 그는 뒤의 고봉재로 새까맣게 밀려오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오줌을 누다 말고 급히 집안으로 들어와 식구들을 깨웠다. "큰일났습니다. 군인들이 새까맣게 밀려오고 있어요. 빨리 일어나요." 당시 집에는 윤씨 부부와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 등 5명이 있었다. 가족들은 "도망치자", "남아있자"고 잠시 승강이가 있었다. 이때 이 지역은 1951년 전쟁 중이었고 지리산 골짜기였다. 당시 가현·방곡 등 지리산 골짜기는 빨치산들의 천국이었다. 주민들은 빨치산들에게는 「식량 공급처」 「인부」로, 국군이나 경찰에게는 「빨치산에게 협력하는 통비분자」로 낙인찍힌 미운 오리새끼 신세였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국군이건 빨치산이건 총을 든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피하고 도망을 쳤다. 이념이나 사상보다는 오늘 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삶이, 그리고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보다는 당장 총칼로부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생존이 이들에게 더 절실했던 것이다. 윤한영씨가 가족들과 승강이를 벌인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때 윤씨의 어머니가 도망치려는 것을 만류했다. "애야 저번에 왔던 군인들은 점잖지 않더냐. 뭐 별일 있겠느냐." 윤씨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멈췄다. "더구나 오늘은 설날 다음날인 명절이 아니냐. 명절날 무슨 일이 있겠느냐." 윤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다. 잠시 후에 군인들이 마을로 들이닥쳤다. 수천 명으로 짐작되는 군인들이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다. 군화발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카빈소총으로 위협하며 주민들을 모조리 끌어냈다. 김새가 이상했다. 마을 전체가 별집 쭉시듯 발각 뒤집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끌려 나왔다. 마을 사람들을 맨 위 공터로 모이게 한 후 일장 연설을 하고 20m 떨어진 골짜기로 갔다. 골짜기 앞 절벽에 이르자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멈춰서면 국군들은 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에 놀라 골짜기로 한꺼번에 떨어진 주민들 사이에 서너살짜리 어린애가 들이 깔려 죽고, 아기를 감싸 안은 아주머니

는 팔이 부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때서야 살기를 느끼고 서로 얼싸안고 벌벌 떨었다. 이런 주민들을 군인들은 골짜기에 4열 횡대로 앉혔다. 윤씨가 제일 뒤에, 앞에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앉았다. 이때 어머니는 뒤를 돌아 아들을 껴안았다. “이 어미가 너를 죽이는구나. 아침에 네가 도망치려고 할 때 말리지 않았더라면 너는 살릴 수 있었을텐데. 이 미련한 어미가 너를 죽이는구나.”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된 어머니가 윤씨를 껴안고 오열을 했다. 이때 “철킨덕”하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어머니가 윤씨의 머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파묻고 온몸으로 윤씨를 감쌌다. 이어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났다. 5분쯤 계속된 총성이 그치고 윤씨가 눈을 떴다. 살아 있었다. 윤한영 자신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온몸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피. 아들을 감싼 채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은 어머니의 피가 윤한영씨의 얼굴에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천지가 조용했다. 까마귀 한 마리 길게 울면서 이렇게 5백명의 목숨을 빼앗은 「산청 민간인 학살 사건」의 막이 올랐다. 어머니의 殺身으로 목숨을 건진 윤한영씨는 꿈쩍거리며 일어나려고 하자 군인들이 소리를 쳤다. “산사람은 모두 일어나라 살려 주겠다.” 윤씨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슬픔과 두려움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5~6명이 일어났다. 그러자 쿵북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확인사살이었다. 이날 이렇게 가현 골짜기에서 죽은 민간인이 무려 90명. 당시 53가구가 살던 가현 주민들은 이렇게 학살당했고, 마을은 모두 불타 없어져 버렸다.

◆지리산의 눈물 2 - 가현에서 9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3대대 병력이 10리 정도 떨어진 아랫마을 방곡에 들이닥친 시각은 상오 10시경이다. 당시 10세의 어린 소년이던 민중식씨(당시 10세, 방곡,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는 아침 일찍부터 윗마을 가현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놀라 잠을 깬다.

“온 마을이 뒤숭숭했습니다. 모두 집밖에 나와 윗마을을 바라보며 무슨 일일까 하며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방곡에서의 상황도 가현의 그것과 비슷하다. 모두 아침밥을 먹다 말고 총소리에 놀라 집밖으로 뛰어 나왔다. 그리고는 “난리가 났다. 빨리 피하자”며 마을의 젊은이들과 진짜 적색분자, 통비분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쳤다.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늙은이, 아녀자 그리고 설날이라 삼촌과 사촌집에 모인 어린이들 뿐. 민중식씨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민씨의 아버지는 가현에서 총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어쩔 줄을 몰랐다. 결국 민씨 어머니에게 등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산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민씨 어머니와 누나, 열살 난 민씨와 어린 동생 2명이었다. 동생 한 명은 이제 갓 태어난 젖먹이. 아버지를 산으로 도망치게 한 가족들은 설마했다. 설마 죄없는 여자들과 어린애들에게 나쁜 짓을 할까 단언했다. 그러나 잠시 후 착검한 카빈소총을 들고 방곡에 들이닥친 군인들을 보는 순간 “이게 아니다” 싶었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고, 무엇엔가 쫓기는 듯 급히 주민들을 몰아 세웠다. 마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노인과 아주머니 어린애들뿐이었다. 그런데 군인들이 10시에 마을에 들이닥쳐 좌담회가 있으니 집안에 쓸만한 물건을 가지고 마을 앞 논두렁으로 나오라고 했다. 군인들이 아랫논에 남자들을 앉힌 후 마을 앞산을 보라고 고함쳤다. 잠시후 쿵북는 소리가 들리고 마을 남자들 아니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논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다시 군인들이 윗논으로 올라왔다. 비명소리가 죽은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천지가 진동하는 또 다시 아녀자들과 어린이, 젖먹이들에게 그들은 사격을 가했다. 정조준이었다. 국민의 적을 쏘라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준 총을 들고, 적의 심장을 겨누라고 배워 준 사

격술로 그들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동생을 이들을 죽였다. 민씨는 잠시 후 눈을 떴다. 주위에는 온통 시체더미였다. 어떤 시체는 불에 타고 있었고 갈기갈기 찢겨진 냅마로 널려 있었다. 민씨는 울면서 어머니를 찾았다. 그리고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일어설 수가 없었다. 열살난 민씨의 두발목이 카빈소총 탄환에 날아 가버렸다. 복사뼈 아래가 없어져 버리고 굶림없이 피가 나왔다. 그리고 민씨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날 이후 1990년 4월 20일 39년만에 방곡을 찾았다. 그날이 곡우날이었다. 이날 방곡에는 40여명의 외지사람들이 모였다. 이름하여 「同心契」 이들은 당시 학살사건의 피해 당사자들로 「거창 학살 사건」이 부각되면서 매년 곡우날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른바 80년대 민주화 바람이 이들을 들뜨게 했다. 최소한 통비분자라는 오명을 씻어야 했다. 그리고 당시 학살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힘없는 늙은이, 부녀자, 어린이, 젖먹이 그리고 임신부였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다. 동심계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갖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 열살 나던 해에 두 다리를 잘리운 채 39년만에 한많은 고향을 찾은 민중식씨, 어머니 살신으로 겨우 목숨을 걸진 윤한영씨, 호랑이 밥으로 남겨져 저주스런 일생을 살아온 이점순 여인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할말을 잊었다. 여기서 민중식씨는 논두렁으로 가서 창자가 끊어 질 듯한 그의 울부짖음이 지리산을 울렸다. “어머니!” 여기서 1백 80명의 방곡 민간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다.

◆지리산의 눈물3 - 민정당에서 산청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적이 있다. 중앙차원의 조사가 아니라 당시 산청지역의 민정당 의원이던 권익현씨의 지시로 팍덕경씨(산청군 금서면 화계리)와 함께 한달 여간 이 사건을 조사했다. 강씨 나름대로 행정기관 치안통계의 자료를 조사하고 유족들과 증언을 토대로 희생자수를 산출한 결과 3백 77명이 희생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강씨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희생지역의 가구 수는 방곡 72가구, 가현 53가구, 점촌 16가구, 자혜 97가구, 화계 64가구, 화산 68가구, 주상 49가구 등 4백 19가구였다. 희생자수는 방곡 182명, 가현 123명, 점촌 21명, 자혜 21명, 화계 17명, 화산 8명, 주상 5명 등 총 377명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강씨의 이같은 주장은 유족들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총 희생자 수는 5백 19명이다. 가현 90명, 방곡 1백 80명, 점촌 42명 그리고 서주에서 자혜·주상·화계·화산 등 4개 마을 주민 2백 17명이 함께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유족들의 희생자 산출 근거는 철저히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가현의 경우 살아 남은 윤한영씨, 최금정씨 등 생존자의 기억과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한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90명의 숫자가 나온 것이다. 방곡·점촌·서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엄연히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 있고 또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던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산출한 이 5백 19명이라는 숫자는 신빙성이 있다. 분명한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역사라고 해서 그것이 축소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프고 숨기고 싶은 역사. 정권 차원에서 보면 끔찍스런 치부일 수 있는 역사일수록 축소·왜곡되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이미 잘 알려진 민족의 큰 상흔이었던 광주가 그렇고 거창·산청 사건이 그렇다.

◆지리산의 눈물4 - 강정희씨(당시 12세, 서주,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는 당시 화계리에 살았다. 5남 2녀의 7남매 중 차남이었다. 강씨도 서주사건의 생존자 중 한사람이다. 점심을

먹고 한참 후였다. 마을이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군인들이 와서 연설회를 하니 참석하라고 했다. 강씨가 가족들과 함께 엄천교 밑 삼각지에 내려가니 5백~6백명의 사람이 모여있었다. 강변의 삼각지에는 인근 자혜, 주상, 화산의 주민들이 모두 다 모였다. 어린애부터 늙은이까지 모두 모였는데 줄을 세워 차례로 앉게 했다. 그리고 군인들이 “네 아들 어디갔어?” “너 빨갱이지?”하며 총구로 푹푹 찼다. 이때 군인들과 함께 있던 유림지서장 송호상씨(사망)가 군인들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죄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작정 끌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였다.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중위계급장의 젊은 군인이 송지서장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건방진 놈, 죽고 싶어? 조용히 해.” 송호상씨가 뺨을 맞는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점점 불안해 졌다. 그러나 그 뺨 한 대는 수많은 민간인들의 목숨을 구했다. 여태까지 무작위로 젊은 사람들을 끌어내던 군인들은 송지서장의 항의에 “군인·경찰가족은 손들고 나오시오.”라고 소리쳤다. 스물 몇 명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나갔다. 이들은 송지서장의 뺨 한 대에 목숨을 구한 셈이다. 군인들은 먼저 끌어낸 젊은 사람 중 20~30명을 따로 끌어내 강옆 밤나무 밭으로 가서 총구를 겨누며 구덩이를 파게 했다. 당시 생존자의 한사람인 김병렬씨(산청군 금서면 자혜리)는 “군인들 중에 인정 많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어떤 군인은 젊은 여자나 나이 어린 청년들 앞 와서 “오줌누고 싶다고 해라.”고 귀엣말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주민들은 “소변 마렵다.”고 일어나면 옆에 다가와서 “멀리 도망가라.”고 일러줘 살아난 사람도 몇 있었다고 한다. 이러는 동안에 시간은 점점 흘러가 하오 6시가 되었다. 어느 정도 구덩이가 완성되자 대장인 듯한 군인이 나머지 사람들을 보내주라고 지시했다.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을 뽑아낸 나머지 사람들에게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빨리 빨리 돌아가라고 했다. 주민들은 혼비백산 강을 건너 바빠 도망을 쳤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군인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왔다. 이제 시간이 된 것이다. “모두들 저쪽 밤나무밭 구덩이 있는 곳으로 가라.” 길게 타원형으로 판 구덩이 앞에 2백 20여명의 사람들이 빙 둘러섰다.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라. 빨리, 빨리.” 군인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발길질이 날아왔고 개머리판이 사람들을 밀쳤다. 사람들이 구덩이에 쓰러져 들어감과 동시에 “드르륵”하는 기관총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조금후 “팡!”하는 수류탄 소리와 함께 시체더미가 하늘로 치솟았다. 이윽고 십여분의 살상을 끝낸 군인들은 시체더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2백 17명이 숨져갔다.

◆지리산의 눈물5 - 그러면 저 끔찍한 산청 학살 사건의 주역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산청사건 이틀 후인 1951년 2월 10일, 제 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은 또다시 거창에서 학살극을 연출하여 7백 19명을 죽였다. 두달 뒤 이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1951년 4월 7일 진상조사단을 이 지역에 파견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상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한 국군들이 공비로 위장, 김종순·신중목·김의준 등 조사단 일행에게 총격을 가해 이들을 도망치게 했다. 결국 위장 공비사건은 발각되어 내무·법무·국방 등 3부 장관이 사임했다. 또한 직접 총격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무기징역등 중형을 언도 받았으나 얼마가지 않아 1~2년만에 모두 풀려났다. 학살부대인 11사단장 최덕신 준장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하여 소장으로 예편한 후 미국으로 이민갔다. 9연대장 오익경 중령은 1956년 대령으로 예편한 후 미국으로 이민 갔다. 3대대장 한동석 소령은 9사단 고급 부관. 수도사단 군수참모. 27사단 부연대장을 거친 후 5.16 이후 강릉·원주시장등을 지내고, 보사부 서기관까지 역임했다. 동

심계 전상근씨는 말한다. “학살 가해자들이 잘 지내고, 못 지내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회복이다.”

◆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2월 하순(한국일보 1960년 4, 5월 기사) 혹은 3월 중순(부산일보 1960년 4월 기사),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로 군용트럭을 앞세운 버스 행렬이 들어왔다. 주민 증언에 따르면 버스는 최소 11대에서 14대였다고 한다. 버스 번호판은 ‘신흥’ ‘경북’ 그리고 ‘서울시영버스’였다는 증언이 있다. 이들 행렬은 외공 마을을 지나 중산리 쪽 반천마을로 올라갔다. 빨치산들의 총격을 받고 다시 철수, 외공마을 뒤 속칭 소정골 앞에서 버스에 타고 온 민간인들을 하차시켜 골짜기로 끌고 갔다. 이때 이미 짐새를 차린 민간인들이 저항하면서 ‘아저씨 좋은 곳으로 살려간다더니 이리 가면 우리 죽는 거지요’라면서 울부짖기도 했다.

이들 민간인들이 골짜기로 끌려간 자리에는 이불, 옷가지, 숯단지, 갓난아기 베개등 가재도구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당시 현지주민들이 회수했다고도 한다. 소정골로 끌려간 민간인들은 곧바로 학살을 당했다. 당시 유일한 현장목격자인 한 나무꾼 노인(사망)의 며느리 증언에 의하면 구덩이 앞에 한사람씩 세워놓고 총을 쏘았다고 한다. 이 부분 다른 지역 학살사건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른 지역 사건을 보면 무더기로 모아놓고 기총소사나 수류탄 투척 등을 자행하였는바, 가끔 생존자가 있었으나 외공의 경우 마치 처형하듯이 학살을 자행하여 생존자가 전무하다. 이는 학살 자들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감추고 싶어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어쨌든 이날 희생된 희생자 수는 버스로 10대, 한 대당 정원을 40명으로 잡아도 최소 400명에서 최대 7, 8백명이 될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가해자는 김종원 부대라는 보도와 증언이 있으나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역시 누구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당시 유일한 생존자 한 사람이 있었고, 사건 후, 세월이 흐른 뒤 밤중에 몰래 현장을 찾아와 통곡을 하다가 간 사람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으나 이 역시 최근 10년 동안은 무소식이더라는 것. 다만 지난 5월 14일 유해발굴 당시 ‘仁商(인천상고)’ ‘京農(경성농고, 서울시립대 전신)’ ‘釜中’ 등의 글자가 새겨진 교복 단추 발견, 숟가락, 금니빨 등의 유류품, 이들을 추적 분석해보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10) 함양

함양은 지리산과 인접한 지역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했던 곳이다. 또 산청군의 사람들이 함양으로 와서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살 시기는 1951년 2월 초순이며 희생자는 500여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 60년 6월 3일 함양군청에서 개최된 진상특위 ‘증언청취속기록’에 나와 있는 증언자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증인(鄭甲錫) : 제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 첫째 유림면 서주부락에서 학살당한 것이 남 27 여 30 계 57명과 방곡에서는 남 5 여 7 계 12명 또 休川면 桐江리 점촌이라는 데서 설에 다니고 온 사람이 한 사람 피학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피학당하고 나서 우리 면으로 이사를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男이 6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총계가 82명이 올시다.

○증인(崔秉哲) :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사건당일까지 공산군 패잔병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군이나 경찰에서 토벌을 하면 도망 갔다가 또 물러나면..... 밤이면 자기네 세상이었습니니다. 정월초 이튿날 아침에 밥먹을 때 경찰 특공대가 들어와서 戶戶에 다니면서 현실고개에서 좌담회가 있으니 나오라고 해요.

○위원장(최천) : 몇 명이나 왔어요.

○증인(최병철) :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집집마다 두서너 사람씩 몰려 땡겼어요. 그러니까 한 20여명 될 것입니다.

○박상길 위원 : 경찰이요? 특공대요?

○증인(최병철) : 특공대입니다.

○조일재 위원 : 특공대원은 군인입니까?

○증인(최병철) : 특공대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동원시킨 분들이고 현장에 가니까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니까 눈을 감고 엎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뺨아내는데 남자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전부다입니다.

○박상길 위원 : 사람을 추려낸 것은 그 사람이 군인이요 경찰이요 특공대요?

○증인(최병철) : 눈을 감고 있었으니 몰으셨어요. 떨어져 눈을 뜬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눈을 그대로 감고 목고개만 들라고 그래서 앞사람을 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뒷사람이 눈을 뜨면 빨갱이라고 꼬집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최종환이라는 이 구덩이에서 살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지서주임 송호상이하고 국군 어느 장교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서주임이 이만하면 그만 뺏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깐 국군장교가 하는 말이 상부에 500명 이라고 보고 들어가 있었는데 더 뺏아야 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최천) : 몇 사람이 들어왔는가요?

○증인(최병철) : 몇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논밭에서 죽이고 여자는 구덩이에 밀어넣고 죽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구덩이에 들어가 있으니깐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했는데 옷타나는 냄새가 나드립니다.

○위원장(최천) : 부대가 같습니까?

○증인(최병철) : 그 당시 마천을 경유해가지고 휴천으로 내려온 부대는 사람도 안죽이고 집도 안태웠는데 우리 동네 사람 죽인 부대는 산청군 방곡 가현서 사람죽인 부대입니다.

○박상길 위원 : 내가 몇가지 郡과 경찰당국에 몇가지 물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인상을 받았는고하니 경찰에서 이 문제가 철저히 들어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는 여기에 낸 수자가 유림면에서 낸 수자하고 달라요. 이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군수와 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묻는 것이고 또 하나 군수 서정계서 나한테 증언해 주실 것은 이 조사를 앞으로 유가족을 모여가지고 마음을 확 펴놓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실정을 속속이 그대로 들어 나도록 협력해 줄 용의가 있겠느냐. 그런데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유림면 같은데에서는 강간사건이 있었다, 처녀를 능욕을 했다, 소를 몇십마리 잡아가지고 추락에다가 고기를 싣고 거창으로 넘어갔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군에서 낸 서류와 유가족이 낸 서류에 있어서 수자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내가 보련계통도 좀 참고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뿔에서 자꾸 그런 것을 건드릴 것이 무엇이있느냐?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 조사단

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증인(李相轍) : 이미 군에서 한 열흘전에 면장에게 일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라해서 어제 저녁에 통계를 보니까 휴천 유림 관계는 한 102명인가 이 정도로 되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 산청 함양 합해서 500명을 채우자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지서주임은 송호상 틀림없습니까?

○증인(최병철) : 틀림없습니다. 휴천면까지는 송주임이 가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500명에 대해서는 서주에서 학살당한 인원수를 말한 것인데 그것은 비단 유림면 사람뿐아니라 산청군 사람까지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숫자가 500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김봉호) : 池谷부락에서 학살당한 분이 몇 명인가?

○증인(최병철) : 25명인가 됩니다.

11) 거창

거창 학살사건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잘 알려진 사건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사건의 정황과 간략한 일지 형태로 살펴보고, 1960년 당시 증언한 사람들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승만은 유격대의 토벌을 위해 새로이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였고 거창 민간인학살사건을 지휘한 9연대를 진주에 배치했다. 미군이 30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시작한 10월 초엽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군대의 토벌에도 불구하고 유격대의 토벌은 용이하지 않았다. 유격대들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전세가 불리하면 깊은 산 속으로 후퇴하였다가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기습공격을 펼침으로써 토벌군을 심각한 곤란에 빠뜨렸던 것이다. 이리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낮에는 정부군이, 밤에는 유격대가 지배하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12월 총퇴각이 단행된 직후인 1950년 12월 5일, 약 500여 명의 유격대는 거창군 신원면에 있는 신원지서를 기습 공격하여 50여명의 경찰과 청년의용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유격대의 공격을 받은 경찰과 청년의용대는 40여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0여명은 간신히 탈출하는 등 타격을 받고 물러나고 말았다. 이로써 승리를 거두게 된 유격대는 즉시 신원면 일대를 해방구화 시키고 동시에 마을청년 수백 명으로 대열을 보충함으로써 그 힘을 대폭 강화시켰다. 이후 경찰은 신원면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작전을 폈으나 그때마다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실패 요인 중의 하나는 신원면이 갖는 지형적 특수성과 이러한 지형 구조를 유리하게 활용하였던 유격대의 독특한 전술이었다.

드디어 1951년 2월 초 거창, 함양, 산청 등 지리산 남부 지역의 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하여 제 11사단 제 9연대는 합동작전에 돌입하였다. 합동작전을 위한 작전 명령에는 다음의 지침들이 시달되어 있었다. 그 지침은 손자 병법에서 따온 “견벽청야(堅壁淸野)”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것은 지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담을 쌓아 절대 사수하고 그 바깥 지역에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제거해 적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 작전 지역내 인원은 전원 총살하라.

! 공비(유격대)들의 근거지가 되는 건물은 전부 소각하라.

! 적의 보급품이 될 수 있는 식량과 기타 물자는 안전 지역으로 후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소각하라.

작전의 요지는 유격대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요소는 완전 파괴하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과 그들의 생활 터전을 말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2월 7일 3대대는 거창을 떠나 신원면으로 진격했으나 적정이 없자 연대 본부에 보고한 후 2월 8일 경찰 병력을 포함한 청년방위대 1개 중대를 남기고 본대는 산청 방면으로 진출했다. 그러나 그날 밤 본대가 산청에서 약 6킬로미터 정도 못미친 지점에서 야영하고 있던 중 신원면 과정리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가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9연대장 오익경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은 한동석은 3대대를 이끌고 다시 신원면으로 돌아가 주민을 처형했던 것이다. 2월 10일경 신원면 와룡리 주민 100여명을 타량골로 끌고 가 집단 사살, 덕산리 주민 80여명이 청연마을에서 학살의 피잔치를 즐겼던 토벌군은 같은 날 신원면 대현리, 중유리, 와룡리 일대에 들이닥쳤다.

그럼 1960년 6월 3일 거창군 신원면사무소에 열린 진상특위원과 증언으로 나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증인(鄭小用) : 3일날 저녁에 덕산에서 자고 4일날 저녁에 남상가서 자고 있는데 면장朴英輔라는 놈이 우리 면에는 빨갱이가 많고 혹은 낮에는 빨갱이를 이불 밑에 넣고 있다가 밤에 내준다 이래서 5일날 도루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불을 굉장히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리고 한참있으니까 군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사랑에 들어와요. 그러드니 밖으로 나가자고 해요. 어디를 가느냐 하니까 논두렁으로 나가자 남녀노소할 것없이 나가자고 하더니 집을 불 살이고 면소재지로 가자 그래 그렇게 하치고.....그래서 우리들이 이리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학교 교실에 꼭 들어찼어요. 그때보니까 열산전 어린이가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먹은 어린 것이 여자 하나 밑에 서넛이 따랐습니다. 우리 신원 대표자 주임이 들어와요. 朴大成이라는 사람이 주임인데 들어오드니 여기에 빨갱이 가족이 누구냐 빨갱이 가족이 나오지 않으니 없으니까 그러면 경찰 가족 군인가족을 빼내는데 경찰가족 군인가족이 아닌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 신원면장이라는 사람이 웬놈이 경찰가족 군인가족이 이렇게 많느냐,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학교를 나오드니 양지방면으로 가요. 그때 음역으로 말하면 근시 가령 되었을 것입니다. 앞에 오는 사람보고 물어보니까 유명 학교로 끌고 간다고 하고 저위로 가는 이는 죽이러 간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가족이 거기 있어서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으니까 군인들이 일을 시킨다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구덩이를 파고 그런다고 잡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고 그래서 그냥 기대리고 있는데 수백명 데려가드니 얼마 있다가 총소리가 나고 총리가 나고 조금 있다가 불을 얼마나 처넣었는디 연기가 집데미처럼 일어나요.

○박상길 위원 : 그때 그위로 올라가 죽었다 그러면 죽인 사람들은 군인만인가요 경찰도 있어요.

○증인(정소용) : 그것은 면에서 보니까 잘 안보였습니다.

○박상길 위원 : 박대성이는 어디에 있었는가요?

○증인(정소용) : 죽이는데 있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 박영보는요?

○증인(정소용) : 박영보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최천) : 기관총 소리였어요?

○증인(정소용) : 달 달달다 그리고 여러 가지 총소립니다.

○위원장(최천) : 몇사람이나 죽었어요?

○증인(정소용) : 죽고 나서 계산해보니까 오백열몇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최천) : 그때 부대가 어떤 부대요?

○증인(정소용) : 화랑부대라고 합디다. 대장은 김종원이라고 그래디다.

다음으로 문홍수씨는 “내탄 마을에서 100여 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군인과 박대성이 하고 박영보하고 들어서 의논해가지고 한 것인데요” 라고 책임자를 거명했다. 또 임주섭(林周燮, 당시 향토방위대장)은 “2월 4일 밤에 거창농립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당시 사찰주임 兪鳳淳의 인도하에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 경찰부대, 청방부대(청년방위대), 향방부대를 군대편성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당시 韓東錫 대대장(소령)과 정보관 등이 내동마을에서 몇 사람을 총살시켰다”고 증언했다.

임주섭은 한국전쟁 당시 정부에서 조사할 때 희생자들을 줄이라고 강요받았던 것을 폭로했다. 그는 “유봉순이가 했습니다. 인원수를 주리라 180명으로 주리라는 것인데 대략 비밀리에 조사한 것이 510명이라는 수자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200명이하로 주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인을 전부 교체를 시켜서 먼저 왔던 사람말고 될 수 있으면 유가족 아니 사람을 증인으로 오느라 유가족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얘기를 할 것이니까 유가족 아닌 사람으로 오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증인으로 못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 임씨는 “유봉순이가 570여명에 대한 사실을 줄이라고 말한 것은 신성모가 여기에 와서 사실을 보니까 수자가 많은 수자요. 또 뼈로 보아도 어린이 하고 노인이니 국회조사단이 와보면 반드시 군의 비행이 들어난다 그래서 군의 압력에 의해서 김종원씨 신성모의 압력에 의하여 한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학살에 대한 책임자들을 열거한 임주섭은 이렇게 폭로했다.

○박상길 위원 : 이 사건에 있어서 임중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증인(임주섭) : 제가 볼때에는 정보장교는 면민이 찌저 죽어야 합니다.

○박상길 위원 : 당시의 거창경찰서에 대해서는 증인의 생각으로 원망을 할만한 사람이 없는가요?

○증인(임주섭) : 거창본서에서는 제가 볼때에는 어떻게 하라 그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방병력과 경찰병력 모든 것이 대대에 편입된 그 즉시부터 대대장명령하에 있었습니다. 경찰향방 병력 모든 것이 한소령의 지휘하에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참히 목숨을 잃은 주민의 수는 국회 조사단의 보고서와 유족회의 조사에 무려 71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토벌군은 자신들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람의 숫자를 187명으로 줄이고 아울러 대상도 모두가 공비 및 공비와 내통 한자라는 허위보고를 연대에 올렸다. 이들에게는 민중들에 대한 대량 학살의 만행도 그날 하루 전과로 처리되었다.

이 사건은 1951년 7월에 시작된 군사 재판을 통해 '민간인 학살'이라는 사법적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당시 중형을 받았던 오익경, 한동석, 김종원등은 바로 다음에 사면을 받고 복권 되었다. 사면 후 김종원은 전남, 경남, 경북도 경찰 국장을 거쳐 내무부 치안 국장까지 지냈다.

1950년 12월 5일 산청군 오부면에 있던 공비(유격대)5백여명, 거창군 신원면 경찰지서 습격, 경찰관 10여명 사망. 경찰지서는 점령되고 경찰 병력은 거창읍으로 후퇴, 신원면은 공비(유격대)세력권 안에 들어감.

1950년 12월 8일 창령 경찰 부대가 탈환 시도했으나 16명이 전사, 실패.

1951년 2월 9일 과정리의 경찰 병력을 공비(유격대)들이 습격, 경찰은 이웃 남성면으로 후퇴, 산청에 있던 3대대는 다시 신원으로 돌아와 매복, 이날 밤 기습하는 공비들을 맞아 접전, 양쪽에서 수십 명씩의 전사자 발생.

1951년 2월 10일3대대장 한동석 소령은 유격대 협력자 색출을 한다면서 부락민 전부를 신원국민학교에 모으도록 지시, 마을 사람들이 산을 넘어 산청 쪽으로 피난가자 박격포를 쏘아 피난길을 막음. 군의 일부는 와룡리 사람들 1백명을 끌고 가 집단 사살, 덕산리 청연부락에선 70여명 학살됨.

1951년 2월 11일 신원 초등학교에 수영되었던 사람 5백여 명, 박산 골로 끌려가 사살됨.

1951년 12월 16일 고등 군법회의는 학살 명령을 내린 연대장 오익경 대령에게(구형 사형), 대대장 한동석에게 징역 10년(사형), 학살을 현장 지휘한 소위에게 무죄 (징역 10년), 국회 조사를 방해한 김종원에게 징역 3년(7년)선고, 김종원은 이듬해 3월에, 오익경은 그해 9월에, 한동석은 1년반 뒤 풀려남. 김종원은 경찰, 오와 한은 군에 복권, 복직되었다.

1954년 3월 3일(음력) 3년 동안 내버려두었던 박산 골의 유골을 주민들이 화장, 과정리로 옮겨 두 무덤에 안치 되었다.

12) 함안군

1950년 7월 하순 함안군 여항면 여항리의 함안광산(일명 昭和鑛山, 1933년 첫 등록하여 1968년까지 채굴했다고 함)에서 보도연맹원 200여명이 학살되었다. 이 함안 광산에서는 타 지역의 주민들도 끌고 와서 총살했다고 한다. 현재 광산 안에는 120여 명의 뼈들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 그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되었던 희생자 유족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함안군 여항면 여항리에서 지금은 진동면 여항리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둔덕골의 총성]

“비가 억수로 쏟아졌지. 그때가 아마 음력 6월 중순쯤 됐나 몰라. 그리고 나서 한달도 채 못돼 여기서도 전투가 벌어졌으니까.”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 옥방마을의 박모씨(68)는 이렇게 49년전의 기억을 더듬어 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진주가 인민군에게 함락되지 전이었으니까 적어도 음력 6월 17일(양

력 7월 31일) 이전이다. 어쨌든 1950년 7월 하순쯤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다. 오전 8시쯤이었다. 진주시 반성면에서 국도를 따라 10여대의 군용트럭이 흙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발산고개를 넘고 있었다. 트럭 적재함에는 모시한복을 입은 민간인들이 가득 타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손을 뒤로 한 채 묶여 있었다. 발산고개를 지난 트럭의 행렬은 봉암리를 지나 양촌리 대정마을로 접어들었다. 잠시 차를 멈춘 후 지휘관인 듯한 장교가 내렸다. 차림새로 보아 보통군인은 아닌 것 같았다. 아침 등교길에 이 모습을 목격한 박씨는 그들을 헌병이라고 생각했다. 그 장교는 지서를 찾았고, 곧이어 전투복 차림의 지서장과 순경들이 달려왔다. 그러는 동안 트럭에 실린 민간인들은 양 사방에서 총을 겨누고 있던 군인들의 명령에 따라 고개를 꼭 숙인 채 죽은 듯이 서 있었다.

“트럭은 적재함 난간을 올려 세운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서 있었어. 트럭 한 대에 약 30여명이 탔으니까 그들이 모두 앉으려면 자리가 비좁았을 거야. 그래서 서 있었던거지.”

지서장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던 장교는 결심을 한 듯 다시 차에 올랐다.

“그때 아마 총살시킬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 같아. 마산형무소까지 데려가 봤자 죽이려면 다시 끌고 나와야 할테고, 어차피 죽여야 할 사람들이니까 번거러움을 피하자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지.”

[주민들 시체수습 동원]

트럭은 대정마을을 지나 대량·거락·셋담·들담·옥방을 지나 여항산 골짜기로 통하는 둔덕마을 아래 저수지앞에 정차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곳은 행정구역상 함안군 여항면 여양리에 속했다. 군인들은 총을 겨누는 채 트럭에 실린 민간인들을 끌어내렸다. 그들은 흰 광목천에 의해 굴비두름처럼 엮여 있었다. 둔덕마을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경영하던 소화광산이 있던 곳이었다. 당시 이곳은 구리가 났었는데, 해방후에도 곳곳에 폐광이 남아있었다. 저수지 옆 작은 골짜기에는 금굴이라는 폐광이 있었다. 군인들은 이곳 금굴 근처의 멧등거리(묘지)로 민간인들을 끌고 갔다. 곧이어 산을 깎아발기는 듯한 총성이 둔덕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서울쪽에서 전쟁이 났다고는 하지만 여긴 총소리가 귀할 때였어. 그때까지 이곳에선 전투가 없었거든.” (문모씨·71·진전면 양촌리 대정마을)

“그때 우리는 겁이 나서 집안에 처박혀 있었지. 총소리가 찌렁찌렁하게 울렸지만 누가 나가볼 사람이 있겠어.” (김모씨·여·91·진전면 여양리 옥방마을)

총성에 놀랐는지,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핏물이 개울물에 씻겨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구. 그때 비가 안왔다면 피비린내가 더 진동을 했을거야.” 200명은 죽히 넘는 민간인들을 이렇게 학살한 군인들은 다시 지서장을 찾았다.

그에게 죽은 사람의 숫자를 말해주고 “혹시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니까 철저히 확인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마산쪽으로 사라졌다. 명령을 받은 지서장은 그동안 집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동원령을 내렸다. 시체를 치우러 나오라는 것이었다. 둔덕과 옥방마을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이 일에 동원됐다. 과연 군인의 예상대로 온몸에 총을 맞고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경남지역 학살지도

“그때 시체를 물어주고 온 시숙이 벌벌 떨면서 ‘목숨이 붙어있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라’ 면서 영영 울더라구. 그런데 경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살려줄 수가 있나. 어휴,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 (김모씨·여·77·진전면 여양리 둔덕마을)

마을 사람들은 시체끼리 엮어 놓은 광목을 낫으로 자른 후 인근 폐광(금굴)으로 옮겼다. 그러나 시체가 워낙 많아 이내 금굴이 가득 찼다. 굴 입구를 돌멩이로 막은 후 다른 곳에 구덩이를 팠다. 거기에 또 수십구의 시체를 묻고 흙과 돌을 덮었다.

4. 피해자와 책임자들

1) 피해자들

지금까지 군경과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된 경남 지역의 민간인들은 얼마나 될까?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유족들의 증언과 1960년 언론보도와 국회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족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경남 전체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 등이 이루어질 때는 더 많은 희생자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별 학살 숫자는 유족회의 증언과 경남민해모 그리고 김기진(부산일보) 기자의 취재 등으로 종합한 피해자수이다.

우선 보도연맹과 민간인 피해자는 마산지역만 1,681명이 바다에 수장됐고, 김해와 창원군 일부지역에서 750명, 김해 진영에서 335명, 김해 대동면 주동광산과 인근 숯굴에서 400명, 거제에서 878명이 학살됐다. 또 진주시 명석면에서도 약 718여명이 총살됐고, 진양군 금산면에서 100명, 사천에서 100명, 함안군 여항면 여양리 둔덕마을(현 마산시 진전면)에서도 200여명이 학살된 것으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됐다. 이밖에도 울산 869명, 창녕군 200명, 삼랑진 200명, 통영 915명(경찰에 의한 학살 115명 포함), 양산시 350명, 밀양시 300명, 남해군 162명(유족 증언 100여명), 하동군 150명(매티재), 함안군 200명, 고성군 100여명 등으로 약 8,393명이다. 일부 지역과 겹칠 수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50년 9월 3일자 <해방일보>는 진주시 명석면과 산청·하동 등지에서 모두 5,000여명이 학살됐다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계산이 가능한 숫자만 해도 당시 경남에선 적어도 1만명 이상이 보도연맹원 사건으로 희생됐다. 또 당시 경남에 소속돼 있던 부산지역에서도 형무소에 갇혀있던 보도연맹원과 정치범 5,000여명을 포함, 약 1만여명이 학살됐고, 마산형무소와 진주형무소(500여명, 명석면 신촌마을)의 정치범들도 대부분 학살당했다고 보면 희생자 수는 훨씬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단체에 의해 유골이 발굴된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뒷산의 500여명과 공비 토벌과정에서 무고하게 학살된 거창·산청·함양학살사건 희생자 1,700여명, 산청군 시천·삼장학살사건 200여명 등 보도연맹 이외의 사건까지 모두 합치면 적어도 부산·경남에서만 대략 3만여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 6월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 719명, 거제군 44명, 함양군 593명, 동래군 33명, 울산을 677명, 충무시 267명, 구포읍 58명, 마산시 188명, 산청군 506명 총 3,085명이고 경남은 2,994명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보도연맹원들의 학살을 제외한 숫자인 듯하다. 그 당시 특위에서도 보도연맹원들을 희생자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논쟁을 끊임없이 펼쳤고, 지역별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보도연맹원들을 전원 ‘사상 불순분자’ 혹은 ‘빨갱이’로 분류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1960년 국회조사시 유족들의 증언에도 희생자 수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마산은 250명(구두로 보고), 울산 500여명, 통영 200여명, 진영 120여명, 거제 400여명이고, 그때 유족회에서는 국회에 공식적으로 희생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한다.

2) 책임자와 방조자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도연맹원과 민간인에 대한 학살사건은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학살극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그 당시 각 지역별로 파견되어 있던 군대(마산 18연대·호림·백골·비호·백호·화랑부대), 군 정보기관(CIC·G-2·HID·CID), 경찰, 우익단체(민보단·대한청년단·국민회·광복청년단) 등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시국수습대책위원회 혹은 시국대책위원회, 해상방위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사례에서 언급하였기에 생략한다. 경남은 지역별로 책임자들이나 방조자들이 차이점을 보이는데, 해안지역은 진해해군사령부와 헌병대 등이 중심이다.

주요 인물은 김종원(1948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 대위, 1949년 2월 마산에서 16연대 창설, 1949년 11월 18일 마산 23연대장으로 진주 산청 통영 거제 마산 지역 공비 소탕 임무, 1949년 12월 부산주둔 육군 제356부대장(당시 중령)으로 양산 울산 경주 포항 창녕 협천 의령 지역을 다니면서 토벌활동, 한국전쟁 때 부산 헌병사령부 부사령관, 계엄지구 민사부장(당시 대령) 등으로 활동), 이0조(본명 이0석, 통영헌병과견대 수석 문관, 민간인 800여 명을 직접 조사 및 처리한 당사자, 생존), 유0봉(거제 CIC 대장, 생존), 성낙현(거제 HID 대장), 배삼식(장승포 동지회), 이채환(동부면 민보단장), 강화봉(거제경찰서 사찰계장), 오덕선(통영지구 헌병대장, 대위), 박태진(계엄사령부 주둔관, 대위), 하채원(통영 해상방위대장), 허장완·공학수배(헌병 문관), 탁성록(진주 CIC 대장) 다수다.

마지막으로, 1960년 국회의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태생적(胎生的)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경남반 위원장을 맡은 최천(민주당, 지역구 충무시)은 경남도 경찰국장(1949~50년)을 재직하고 있었다. 또 의원들은 '양민학살'만을 조사한다며 보도연맹이나 좌익혐의자들에게 대해 애써 회피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조자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단정수립 이후 일명 '공비토벌'과 국민보도연맹 결성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빨갱이' 혹은 '공비분자'로 몰려 희생당했다. 희생된 사람들은 '빨갱이'도 '통비분자'도 아닌 순수 민간인이고 사상분자도 아니었다. 이 사건은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반대파 숙청과 다름없는 무자비한 학살이었다. 그중에서도 경남 지역은 많은 희생자들을 낳게 했고 수만명의 유가족들이 온갖 고통을 당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경남에서 보도연맹 사건에 의해 민간인들이 3만여 명이 학살되었다는 여러 자료와 증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경남 전역에서 발생했지만 일부만 확인한 것이다. 또한 당시의 학살 사건에 관련한 책임자는 비정규군대와 육군·해군(전쟁중 계엄사령부등), 일부 우익단체(민보단원·대한청년단), 경찰, 각종 육·해군 정보기관(CIC·G-2·HID) 대원들도 연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경남 민간인 학살사건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 기관에 의해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학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남모임에서는 1차적으로 올 12월말까지 경남 전 지역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백서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확인된 함안·하동·의령·합천·창녕 등지와 추가로 고성·사천(삼천포)·진해 등지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실태조사⁸²⁾에 대한 중간보고

최정기 박사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 광주 인권센터 운영위원)

1. 문제제기

‘노근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국내에서는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8,522명의 민간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학살당했다는 1960년 4대 국회의 조사결과가 발견되었으며, 대전과 경북 경산에서는 유골의 발굴작업이 이루어졌다. 물론 한국전쟁 당시 수 많은 민간인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소문이나 구전을 통해서 전승되고 있었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것은 ‘망각하기’의 대상이었지 역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기억하기’를 통해 우리의 역사가 되고 있으며, 사회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한국전쟁으로 불리는 역사적 사건에는 대한민국의 혹은 ‘인민공화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삶의 굴절이 포함되어 있다. ‘만무방’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가는 부대에 따라 태극기와 인민공화국기를 번갈아가며 사릿문 밖에 게양하는 모습이 나온다. 한국전쟁기를 살아왔던 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즉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전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쟁도, 조국의 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전쟁도 아닌, 그저 ‘난리’일 뿐이었다. 그리고 난리의 와중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혹은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던 행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가족을 잃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인간 이하의 행동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또 분단체제로 인해 그러한 사실의 기억과 망각 조차도 남과 북의 정치체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망각이 강요된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나도록 그와 관련된 말조차 하기 어려웠다.

본 조사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좌와 우를 막론하고 무장조직에 의해 행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연구의 첫 단계로, 그 대체적인 윤곽을 밝힐 수 있는

82) 본 조사는 광주 인권센터와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의 공동 주관으로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이미 5년 전부터 1948년 여순사건으로 인한 학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연속선상에서 전남 동부지역(여수, 순천, 고흥, 보성, 구례, 곡성)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의 광주·전남의 시·군 지역들은 광주 인권센터의 책임하에 조사가 진행되며, 본 연구자는 그 연구팀의 일원이다.

학살지도 그리려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조사보고서는 많지 않으며⁸³⁾,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에 대한 공포 속에서 침묵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군부대의 작전중 희생당한 함평지역과 나주군 세지면과 화순 지역의 학살사건 뿐이며, 그의 광주시 지원동 지역에서 일부 유족들이 지역 수준에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⁸⁴⁾, 한국전쟁 당시 광주·전남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살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는 관련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공포와 침묵을 깨트리고, '기억하기'를 통해 민중들의 고통과 상처를 공식적인 담론의 장으로 떠오르게 하려는 의도 하에서 기획되었다.

이렇게 볼 때 광주·전남지역은 매우 중요한 조사대상지역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전남지역은 먼 단위까지 조직화될 정도로 당시 남한지역 내에서 이른바 '빨치산'들이 가장 강성했던 지역이며, 따라서 좌·우익 사이의 갈등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다. 둘째, 광주·전남지역은 여순 군인봉기 이후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장기간에 걸쳐 군부대의 이른바 '공비토벌'이 계속되었던 지역으로 민간인학살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조사과정을 점검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학살사건의 유형분류를 시도해 보는 중간보고의 성격을 갖는다. 나아가 그 결과를 타 지역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사방법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따라서 글의 구성은 먼저 2장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조사과정 및 현황을 검토한 다음, 3장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살사건의 유형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2. 조사과정 및 현황

1) 조사주체의 형성

광주·전남지역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부 연구자들이 갖고 있었다. 다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그와 관련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제주 '4·3사건'이나 거창 학살사건의 진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전남 여수에서 이미 그러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0년 5월 전남 구례에서 열린 동아시아 인권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의 결성이

83) 강만길은 3년 1개월간 계속된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에서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가 생겼다고 한다(강만길, 1984).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4) 이와 관련된 자료로는 각 군의 군지나 향토신문, 증언자료 등을 들 수 있다.

논의되고, 그해 6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움이 개최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사팀의 결성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광주 인권센터의 구성원들과 몇몇 연구자가 결합하여 「진실과 조사」라는 이름의 조사팀이 꾸러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광주·전남지역의 조사방식에 대한 협조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대상 지역을 분할하여 각자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광주 인권센터의 「진실과 조사」 팀은 인권센터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직장인들과 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등 7-10명으로 구성되었다⁸⁵⁾. 이들은 동원하기가 쉽지 않으며 조사에만 전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에 대학생들에 비해 장기간의 조사가 가능하며 조사대상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보다 신중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 조사팀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술체록의 방법, 광주·전남 지역현대사의 전개과정, 한국전쟁과 빨치산 등의 주제에 관한 논문이나 자료를 통해 조사대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효과적인 조사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 조사팀의 1차적인 과제는 1~2년 안에 광주·전남지역의 '학살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및 그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조사팀의 체계는 연구간사와 실무간사를 각각 1명씩 두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한 명씩의 연구자가 할당되어 각 지역에서 별도의 조사팀이나 협조자를 구하는 형태로 결정되었다. 처음에는 한 지역씩 전체 조사팀이 투입되는 조사방식을 생각하였지만, 그럴 경우 한 지역에 전체 조사팀이 묶일 위험부담이 있었으며 학살사건의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이 조사의 목표라는 생각에서 조사팀의 체계를 바꾼 것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조사협조팀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사에 협조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수준에서라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조사팀은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합을 갖고 있다. 조사원중 상당수가 직장인이며, 조사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저녁에 만나기보다는 점심시간에 만나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회의를 한다. 이를 통해 1주일 동안 얻었던 성과를 서로 보고하고 검토하며, 앞으로의 조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2) 조사계획 및 질문내용의 확정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은 그 자체가 50년 동안 은폐되어 있던 주제인 만큼 그에 대한 조사도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나주와 해남, 화순 등지에서는 본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지역수준에서 그에 관한 언론보도나 조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함평지역에서는 유족회가 조직되어 이미 수 년 동안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비록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미 피해자들이 그 사실에 대한 망각에서 벗어나 '기억'의 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본 조사는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조사계획을 확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85) 조사원중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은 관계로 조사원의 수가 유동적이다.

- 1단계: 조사팀 정비 및 준비자료 수집
- 2단계: 해당 지역별 조사준비(지도 포함)
 - 지역별 자료(군지 및 면지는 필수, 그 외 전체 자료에서 해당 지역자료 정리)
 - 지역별 조사협조사 카드 작성(군별 협조단체 및 개인, 조사대상자 명단 확보)
- 3단계: 지역조사, 조사표 작성
 - 녹음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녹음을 하기로 함

동시에 조사대상의 시기 및 사건의 성격을 해방정국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8년(실제로는 좌우갈등이 격화된 1948년 이후 1953년까지) 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때 국가권력은 매우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정규 군이나 국가관료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과 직·간접적인 관련하에 활동하였던 청년단이나 무장조직 등이 모두 망라되며, 좌·우익 모두가 포함된다. 또 형식적으로는 사법적 절차⁸⁶⁾를 거쳤더라도 내용상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학살사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⁸⁷⁾. 이 과정이 그렇게 원활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 조사팀의 구성이 논의되고 조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논의된 것은 2000년 9월이었지만, 실제 조사가 시작된 것은 2001년 3월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사원을 확정하는 것과 조사경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조사원칙을 정하는 문제였다.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만들지 않았다.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역마다, 또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다양한 사건들이며, 조사대상자들의 경험 역시 매우 다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반드시 질문해야 할 내용과, 조사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사표 작성을 통해 통제하였다. 조사표는 다음 예시와 같은데, 별도로 조사표 작성을 위한 설명서를 덧붙였다.

예시) 한국전쟁기 ○○군 민간인학살 조사표

조사지역	일 시	사건장소	가해자	피해자	규모	사망형태	지역특성
△△면							
△△면							

조사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조사 자체가 지역별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학살의 유형, 예를 들면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학살의 경우에는 기록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보도연맹원은 대체로 전체 군지역에서, 혹은 몇몇 면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학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좌익 사범의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감하였다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학살하였는데, 이것 역시 파악

86) 이 경우 경찰이나 군의 즉결처분, 좌익에 의한 인민재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다 심화된 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87) 학살의 또 다른 유형으로 비행기의 기총사격이나 폭격 등에 의한 사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의도적인 학살만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론 비행기의 폭격이나 기총사격도 의도적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기가 쉽지 않았다. 대체로 지역조사의 과정에서 이들 피학살자를 확인한 다음, 특정 사건 및 교도소에서의 학살사건은 따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조사방법의 차등화와 지역별 조사팀의 구성

광주·전남지역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군은 광주, 장성, 담양, 화순, 나주, 함평, 장흥, 해남, 완도의 9개 시·군이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의 조사 진척정도는 상이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기존의 조사된 결과가 있었는가의 여부 및 현지 조사협조팀이 꾸려지는 시기 등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대체로 지역의 전체적인 윤곽은 파악한 상태이며, 그것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시도되는 과정에 있다.

한편 본 조사는 일관된 조사방식이 정해지기 보다는 조사지역들이 보여주는 차이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소는 기존의 조사활동 여부, 사회단체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지방의원중 본 조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의 여부였다. 이들 요소들에 따라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지방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군의 행정력을 이용해 주민들의 제보를 접수하는 방식이 있다. 본 조사팀은 조사특위와 협조관계 속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방식은 접수된 결과를 토대로 해당지역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가 가질 수도 있는 위험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보 자체가 가족중 생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또 지방의원중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협조자가 있어야만 하며, 지방의회에서 특위구성이 가결될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가능한 방식이다. 현재 화순과 담양지역의 조사가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② 해당 지역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현지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결성되고, 본 조사팀의 구성원이 그에 가담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현지 조사의 주체는 현지의 사회단체들이며, 본 조사팀은 그 조직에 대해 연구 및 조사와 관련된 지원과 타지역이나 전국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의지인들이나 유족들에 의한 조사에 비해 조사의 효율성과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명예회복과 기억의 정치라는 조사 자체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조사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의 조사는 여러 사회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사실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나주지역의 조사가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⁸⁸⁾.

③ 망각의 세월 속에서도 유족들중 일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온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럴 경우 본 조사팀에서는 이들 유족들과 협조관계 속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형태이다. 유족들이 모두 증언대상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술채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사가 그 유족들이 관련된 특정사건에 매몰될 위험 역시

88) 나주의 경우 시 문화원과 청년회, 향토신문사 등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상존한다. 본 조사팀과 유족의 결합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유족회가 강력하고 학살사건이 이미 드러난 경우에는 조사팀과의 결합 정도가 매우 약하며, 유족회가 없거나 있더라도 조직력이 미약하고 사건 자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들과 본 조사팀의 결합 정도가 상대적으로 긴밀하다. 광주, 완도, 함평, 장성 그리고 나주 세지면 지역의 조사가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④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앞의 조사형태들이 모두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에서 접촉 가능한 협조자 1-2명과 함께 조사를 하는 형태도 있다. 조사가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부분에 관심있는 협조자를 만난다면 매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장흥과 해남지역에서 이러한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경우 조사가 보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의 형태들중 하나로 변화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조사들이 진행된지 이제 4개월 정도가 지났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조사는 본 조사팀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조사원들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졌으며, 조사원들도 나름대로의 조사방법을 체득한 상태이다. 또 본 조사팀의 활동이 점차 알려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보자가 등장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안

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에 대해 현재 조사팀이 갖고 있는 고민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인원의 부족 - 현재 조사팀이 안고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조사팀에서 동원가능한 총인원은 10명 정도이지만, 실제로 동원되는 인원은 5명 정도이다. 한 명의 조사원이 한 지역을 조사하는데 드는 시간은, 지역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찾고 있지만,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② 경비 부족 - 최초 조사가 시작될 당시 본 조사팀의 총예산은 1천만원이었다. 그리고 조사원에게는 교통비와 조사중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를 실비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이 정도 마저도 충족할 수 없다는데 있다. 현재는 조사원들이 상당수 직장인이기 때문에, 또 조사팀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들여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조사원들중에는 직장이 없는 관계로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 지역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만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③ 지역별 조사팀 구성의 어려움 - 본 조사팀의 경험으로 보면 가장 바람직한 조사형태

는 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거나 지역 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현지 조사팀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조사보다도 그 자체로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한다.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중이다. 즉 광주·전남의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원들중, 그리고 지역의 사회활동가중 범국민위의 사업에 동조하고 적극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이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사작업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의도이다.

④ 기억의 현재적 국면에 관한 문제 - 구술채록시 조사대상자들은 나름대로의 정세 파악을 통해 매우 전략적으로 증언을 한다. 즉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술채록은 조사대상자가 과거 사건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이전에 왜 그것을 기억하는가? 기억하는 것들중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사건을 학살로 기억하고 있고,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이 먼저 제기되어야만 한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이는 두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는 조사와 물질적 보상을 연결시키는 사고이다. 범국민위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지만, 유족 등 피해관련자들은 5·18이나 부마항쟁, 민주화운동, 거창사건, 4·3항쟁 등의 처리방향을 통해 미리 물질적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 자체가 조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그외 부분은 차후의 문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자들이 조사대상자들과 래포(rapport)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조사대상자들이 아직까지 한국전쟁기에 대한 증언을 망설이는 측면이 있다. 한 지역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대응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조사를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공신력 있는 법률이나 기관이 그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군 작전중에 집단적인 학살이 발생한 경우 유족중 일부가 자신들을 '순수 피학살자'로 부르면서 다른 학살사건과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 경우 역시 조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기' 자체를 파편화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피학살자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

⑤ 연고자 불명의 경우 - 학살은 피해자의 거주지나 그 근처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조직적인 학살이 이루어진 경우 대개는 여러 지역에서 사람을 모아서 한 곳에서 처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학살당한 사람에 대해 학살지 근처의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가족이 모두 학살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에는 증언해 줄 사람조차 없는 것이다. 또 피난길에서 학살당한 경우에는 지역조사를 통해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조사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전체 피학살자의 일부가 될 것이다.

⑥ 자료의 문제 -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경우 자료 자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범국민위'가 결성되어 있지만, 서울과 지방 사이에 확보된 자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범국민위' 서울 사무실에서 연구자들이 개별적으

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나 정부 소장 자료를 수집한 다음, 자료제공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에서의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 시기별·사건별 유형 분류

아직 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만으로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은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① 한국전쟁 이전 빨치산 토벌시기의 주민 학살 - 여순사건 이후 전남지역에서는 이른바 '빨치산' 혹은 '반란군'으로 불리는 좌익 무장세력⁸⁹⁾들이 여러 산중에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수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서 '빨치산'을 도와주거나 지지했다는 명목으로, 혹은 군부대의 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이 학살당한 경우이다. 대체로 1949년의 상황이며, 현재 조사된 지역으로는 화순군 춘양면과 이양면 등이 있다. 본 조사팀의 조사지역이 전남 동부지역을 제외한 상태이고 여순사건의 파장은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례는 많지 않다.

② 보도연맹사건 - 최근 모 방송국의 보도로 인해 널리 알려진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은 거의 모든 조사지역에서 발견되는 사례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 해 7월 23일 광주에 인민군이 들어오기까지 한 달 동안 보도연맹원들은 경찰조직에 의해 집단적으로 학살당하였다⁹⁰⁾. 현재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보도연맹사건 관련 지역은 광산구 지평동, 나주군 왕곡면 온수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골짜기, 함평군 3개 지역(나산면 구산리 냇대, 학교면 복천리 얼음재, 함평읍 옥산리 계두산 등), 장흥군 수문포, 광주시 지원동 등이다.

③ 군·경 후퇴시의 학살사건 - 광주 이남 남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군·경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학살한 경우가 많다. 특히 해남과 완도 등지에서는 1950년 7월말에서 9월 초에 이르는 동안 일명 '나주부대'로 불리는 경찰부대가 인민군 복장을 하고 들어와 환영하는 사람들을 사살했다고 증언한다. 또 목포교도소와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사범들 역시 군·경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하였다.

④ '인민공화국' 치하의 학살사건 - 이 시기에는 이른바 '반동분자'라는 이름하에 일제때 경찰이나 공무원을 지냈던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이 학살당한 사건이 나타난다. 아직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또 그동안 계속 '기억'되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사가 쉽

89)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산사람' '밤손님' 등으로 부른다.

90) 광주 이남의 지역에서는 7월 23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해남지역은 7월 28-9일 경에 인민군이 들어왔다.

지 않지만, 이러한 형태의 학살은 소규모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장흥군 유치면 대리를 들 수 있다. 또 광주에서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많은 우익인사들이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⑤ 군 작전중의 학살사건 - 인민군이 광주·전남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는 1950년 7월 23일 경부터 동년 9월 28일까지 약 2달 정도의 기간이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은 이른바 '빨치산'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곳이며, 이들과 토벌대 사이의 전투로 사실상 한국전쟁 전기간에 걸쳐 매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구례 지리산, 광양 백운산, 화순 백아산, 담양의 가막골, 장흥 유치의 국사봉, 영광 불갑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지역과 인접해 있는 시·군 지역들, 즉 나주, 화순, 함평, 장성, 담양, 장흥, 보성 등이 포함된다. 당시 이들 지역에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빨치산'들이 출몰하는 관계로 주민들은 군과 빨치산 양쪽 모두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특히 집단학살과 같은 사례는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빨치산' 보다는 군부대에 의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현재 조사중인 지역들중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되는 곳은 화순과 담양, 함평, 나주, 장성, 장흥 등 거의 모든 조사지역이 망라되어 있다.

⑥ 부역자 색출과정에서의 학살사건 - 군 작전이 전개중인 곳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인민공화국'에 협력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처형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학살 유형은 시기적으로 장기간(1950년 말부터 1952년까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군 인이나 경찰, 혹은 우익 단체 등이 거주지를 찾아와 학살한 경우도 있지만, 경찰서 등으로 불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례도 자주 발견된다. 현재 조사중인 지역중에서는 나주군 봉황면, 장흥군 장평면과 유치면, 담양읍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상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에 따른 학살유형의 차이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보도연맹사건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례이다. 따라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우연적인 현상이거나 현지 경찰의 판단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학살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학살된 사람의 수 역시 최하 해남지역의 50여 명에서 나주지역의 300여 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다. 또 이들은 대부분 지역에 따라 1~3 곳의 장소에서 포승이나 철사줄 등으로 묶인 채 한꺼번에 학살되었다. 이들이 보도연맹원이라는 점에서 좌익세력 중 전향한 사람들이 태반이겠지만, 지역적 수준에서는 오히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실적 위주의 조직사업 과정에서 가입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의 후퇴과정에서 발생한 해남과 완도지역에서의 주요 학살사건들은 보도연맹원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선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 사건들은 조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속칭 '나주부대'의 개별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통해 인민군 환영대회를 준비하라고 연락한 다음 인민군 복장을 하고 들어가 환영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⁹¹⁾을 학살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만적이며, 피해 역시 매우 크다. 특히 완도지역의 경우

91) 머리말에서 언급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주민들은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자기 지역에 진주하는 부대를 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환영의 표현을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라기

피해 주민들이 남해안의 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조사 역시 쉽지 않다. 당시 부모님과 형제들을 잃은 한 유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완도에서 명단이 파악된 피학살자만 해도 100여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본 조사팀의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해남지역의 피학살자 역시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나주부대에 의한 피학살자는 최소한 2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군 작전중의 학살사건들은 주로 '빨치산'의 주요부대가 있는 산악 인근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가장 흔한 학살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는 군인들이 이들을 죽인 다음 '공비'를 토벌한 것으로 보고를 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문서고에서 발견된 함평지역의 피학살자 524명은 모두 군부대의 작전과정에서 '공비'로 토벌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는 알려진 함평과 나주 세지면 뿐만 아니라 담양군 대덕면 산정리, 장성군 황룡면, 그리고 나주군 세지면과 다도면 암정리 등 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사상자 수도 수 백 명에서 10명 미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상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글이 중간보고서의 형태이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여기서 광주·전남지역의 학살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만 보더라도 한국전쟁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살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타지역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유형 외에도 민간인들 사이의 보복적인, 혹은 이념 대립의 와중에서 행해진 학살의 유형이 발견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보다 확실한 피학살자 수와 사건의 형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등은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학살당한 민간인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상당수는 좌와 우도 아닌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민초들이었다. 이들이 특정 정치세력에게 우호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지지의 표시라기 보다는 전쟁의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으며 그에 대한 기억마저 잃고 살았다. 설령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했다고 해서 기억마저 빼앗기는 것은, 그에 대한 하소연 한 번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인권센터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수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글은 민간인학살에 대한 보다 나은 조사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방법 및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간보고를 한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중간보고라는 점을 참작하여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활발한 토론 속에서 진전된 방법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사회단체 등의 자세에 관한 부분이다. 최근 하나의 사건이나 자료가 발견될 때마다 바로 언론에 소개가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다는 전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두 사람의 증언만으로 곧바로 사건을 이슈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증언이 잘못된 것일 경우 전체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받기 때문이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사회단체들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한 다음 이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구·경북지역 민간인학살 사례보고

노용석 강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대구경북 공동조사단장)

1. 머리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구경북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학살되었고, 이러한 사건들은 아직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낙동강 전선을 중심으로 한 북한군과 이남군의 최대 격전이 이루어진 곳이었으며, 이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경상북도의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펴낸 '활동결과 보고서'만 봤을 때도, 2000년 6월까지 경상북도의회에 신고된 사건의 희생자는 약 2000여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⁹²⁾ 그리고 이 가운데 국군(경찰)에 의한 피해자의 약 71%가 보도연맹에 의한 학살사건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2000년 11월 2일에 여러개의 단체(전민특위 대경본부, 정신대 할머니를 위한 시민모임, 대구한겨레문화정보센터, 경북대 사학과 대학원)가 모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대구경북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지역에서 일어난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있다. 먼저 조사지 선정은 <경상북도의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조사한 지역에 대한 재조사 및 새로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공동조사단에서 조사한 지역은 경산과 청도, 포항, 문경, 예천지역이다. 이 중에서 경산과 청도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조사하지 않은 지역이다.

92) 경상북도의회에서 보고된 양민학살 피해신고 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야만의 역사를 이대로 묻어 둘 수는 없다

계	피해유형					피해상황		
	미군 폭격기	미군함 포사격	미군	국군 경찰	기타	사망	부상	재산피해 (주택)
119	33	3	3	78	2	1,670이상	200이상	153

* 여기에 신고된 내용은 사실확인 등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단지 신고된 내용만을 집계한 것이다. 일례로 경산 폐코발트 광산 학살이라든지, 대구 형무소 재소자 학살에 대한 것은 이 책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경산 민간인학살 피해유형

경산에서의 민간인학살은 폐코발트 광산에서의 학살사건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폐코발트 광산의 학살사건은 단순히 경산지역 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 인근의 모든 보도연맹사건과 대구 형무소 재소자 처형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다음은 경산지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학살 유형들이다.

● 김태천(부친 : 김수도(84))

짚단 3단주고 보도연맹 가입.

청도읍 덕암지 못 무등에서(50.6.15) 경산으로 잡혀옴 → (6.17) 어머니 면회 왔으나 못 만났다. 눈에 모아놓고 몽둥이질을 했다.

● 이용선(오빠 : 이용수(21세))

유족 나이 당시 19세. 형제(1남3녀) 중 중간 아이의 집은 경산압량에 있었지만 유족은 대구 직장에 다니고있었다. 전쟁 직후 집에오니 마을 전체가 CIC가 총을 들고 장화같은 신을 신고 온 동네에 사람을 잡으러 다닌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고, 이미 사건이 난 후였다.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고, 잘 모르시던 상황에서 오빠가 보도연맹에 도장하나 찍어준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큰 언니가 있는 부산에 가라'고 했는데, 오빠는 '죄진 것도 없는데 갈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CIC가 3일정도 동네에 들락날락 하는 동안에 잡혀갔다고 했다. 어머니가 지서에 면회를 갔다왔다 하곤 했다. 어머니가 우시면서 오빠가 불들려갔다, 동네에 청년들이 다 불들려갔다고 했다. 국군들 후퇴하고 인민군이 영천까지 쳐들어왔을 때 동네에 미군부대가 있었는데, 미군이 아가씨를 잡아간다는 말이 들려서 동네에 다니기도 겁이 났다. 오빠는 그 후로 죽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소식을 못 들었다.

직장에 다시 나가기 위해 대구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전부 죽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굉장히 아낀 아들이었던 오빠는 죽어서 어머니 가슴에 묻혔다. 눈도 못감고 돌아가시면서, 아들 이름을 불렀다. '남편은 땅에,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것'이 자신도 아들을 잃고 보니 엄마 생각이 절실해 졌다.

● 양영희(68)(누이동생 : 양영호(당시 23세)-신리본동 94-227호, 878-9478)

철도기관국 공작계 근무 중 상사 권유로(우선 대접해준다)로 보도연맹 가입, 1배급 주고 특별대우. 시민회관 광장에서 트럭에 태워져 사라졌다.전쟁 발발 1주일 후 잡혀가 3~4일 후 면회. 광산굴에 갔다는 소식을 들음.

● 박상운 (아버지)

당시 자신은 군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편지를 통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쟁적 후 경찰에 아버지를 끌고갔고 이후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골짜기에서 사는 동안 전쟁 전에 빨치산에게 밥을 해줬다는 것이 이유였다.

● 정시중(부친 : 정차섭. 협석리 445-4번지)

일제말기에 일본군에 징용갔다가 해방되면서 돌아오셨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는데 49년 1월경 경찰서에서 와서 잡아가셨음(이유는 모르겠음, 당시는 마을사람들 모아놓고) 열심히 살라고 도장찍고 풀려났다. 다시 농사를 짓고 49년 9월경 저녁식사후 협석리 193번지(집)에서, 옆의 큰아버지덕에 청마루에서 가서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대문앞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와서 '손들어, 꼼짝마'하는 소리가 난 이후 큰 아버지는 무서워서 못 나와보고 아버지는 끌려가셨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당시 유족은 태어난 지 얼마 안되셨다.

● 홍 손 연(66세)(오빠 : 홍 화 식(26세) - 수성구 신매동 584-3번지)

당시 유족은 15세 정도 오빠는 25~26세 정도.

오빠는 한마을(압량면 신대동) 사람이 도장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보도연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장하나 찍어준 것 때문에 불들려 갔다. 장가가고 석달만에 전쟁이 났던 그해 음력 8월 순경이 와서 불들려 갔다. 그 먼저 불들려 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그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오빠를 불렀다. 오빠는 자다깨서 쫓아나와 '어떻게 풀려 나왔느냐'며 반가워하는데 그 사람 뒤에 있던 순경이 바로 오빠 손목에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갔다. 아마 순경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오빠를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

오빠는 부적(사진관, 당시 과출소)에 있다가 경산(담배청 위치로 추정)으로 옮겨졌는데 며칠 어머니와 울케가 밥을 해다 날랐다. 앞서 불들려 간 사람들이 풀려 나온 사람도 있어서 죄도 없이 불들려 간 오빠도 곧 풀려날 줄 알았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가 밥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다가 울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순경이)밥을 안 받는다. 이제 오지 말라하더라'했다. 그때가 인민군이 영천까지 내려왔을 때이다. 오빠의 처가가 삼풍동에 있었는데, 그때 그곳 사람들이 '사람들 눈을 가려서 차로 몇 번씩이나 나르더라', '굴로 데리고 갔다'라고 했는데, 오빠도 그렇게 죽은 것 같다.

● 전 장 윤(50세)(부친: 전경희(31세)- 용성면 용산리 372번지)

당시 아버지는 마을이장. 전쟁 바로 전 겨울에 경찰에 의해 끌려가심.

고향이 골짜기이다 보니 밤에는 빨치산들이 와서 반장인 아버지를 찾고, 낮에는 경찰들이 와서 아버지를 찾았다. 전쟁이 나기 바로 전 겨울, 경찰이 아버지를 끌고 갔고 아버지는 대구형무소에서 재판도 없이 미결수로 있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7월 30일(음력 6월 16일) 광산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쯤 할아버지가 면회를 갔는데, 교도관이 '이제 면회오지 말라', '인근지역에 처형 갔다'라는 말을 듣고 오셨다.

당시 어머니는 26세, 내 나이가 7살, 동생들이 5살, 3살이었다. 자라면서 살기가 힘들었던 것은 물론이고 연좌제가 겹쳐서 나는 전방에서 근무하고 월남에도 다녀와야 했다. 아버지의 사망신고는 1964년에 마을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정확히 안 것은 최근이다. 1960년6~7월 발행된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당시 끌려가 죽은 사람 명단 1402명중에 아버지의 성함도 있었다.

● 김태순(74세)김기호(유족동생)(남편 : 천태암(76세) - 용성면 매남3리)

김태순 유족은 22살, 남편 24·5살.

남편은 동네에서 인민단 단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좌익활동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청년들이면 다 인민단에 들어야 한다고 해서 들었고 단장을 하게 되었다. 전쟁전 겨울에 경찰이 와서 '빨치산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잡아갔다. 신고를 할 수가 없는데 신고를 하면 빨치산이 와서 죽이는데 어떻게 신고하겠는가. 그렇게 잡혀간 남편은 용성지서로 갔다가 경산경찰서로 옮겨졌다. 용성지서에는 나도 잡혀갔는데 아는 대로 다 말했다고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해도 무조건 모른다 했다. 그래서 나는 풀려났지만 남편은 경산경찰서로 옮겨졌다. 아마 고문을 못 이겨서 아는 대로 말해버린 모양이다.

그리고 12월 17일(음력) 경산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같이 잡혀간 사람 셋이 묶여서 총살을 당했다. 같이 묶은 두 사람은 죽었지만 남편은 오른팔에 총알을 맞아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을 쳤다. 마침 친정집으로 도망을 쳐서 친정 골방에다 꼭꼭 숨겨두었다. 그러다 3월(음력)에 집안에 법을 잘 아는 분의 권유로 남편이 자수를 하게 했다. 그때 자수를 안 했으면 살았을 거다. (보도연맹에 자수한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집에서 지내다가 5월(음력, 전쟁이 터진 직후)에 있다가 어느 날 경찰이 그런 사람들을 '경찰서로 오라'고 다 모았다. 남편은 나가면서 딸아이에게 '내 곧 다녀오마, 고구마 사오마'했는데 그렇게 나가서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40대까지는 하루도 잊지 못하고 가슴이 메이면서 살았다.

● 정용호(형님: 정용우, 정삼우-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5번지)

압량 강제에서 살았는데(지금도 아들·며느리가 살고있음) 전쟁이 터지고 바로 두분 형님(정용우, 정삼우)은 보도연맹 관련으로 끌려가신 이후로 소식을 못들었다. 어디로 끌려가신지도 모른다. 마을사람 대부분이 좋은 것인줄 알고 보도연맹에 가입했었다. 경찰이 끌고 갔지만 당시 경찰은 CIC에 예속되어 있었다. (전쟁 중 비상계엄상태였기 때문에 지방의 모든 권한은 민사처장, 헌병대상, CIC대장으로 3권화되어 있었음) 아마 전쟁직후 전선이 밀려 내려오면서 마포형무소(주로 사상자가 수감되어 있었음)의 수감자들이 풀려나 남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건으로 보도연맹을 무조건 다(죄와는 상관없이) 잡아가게 되었던 것 같다.

형님들은 불들려 가고 나이가 어려서(당시 17세) 나는 청방(대한청년방위대?)에 들어갔다. 나중엔 군에 갔다. 코발트광산 근처에 2층 건물에 청방 사무실이 있었고, 건물 구석에 파견 나온 CIC 사무실이 있었다. 유치장에도 자리가 없어서 건물지하에 사람들을 한 20명 정도 가득 가둬두고 보초를 세웠다. 지하라 창문도 없고 문도 나무문뿐이었는데, 화장실도 안에 드림통을 갖다 놓고 있었고, 사람들 땀냄새도 많이 나서 문을 열면 악취가 진동을 했다. 때로는 CIC감시를 피해 밤 12시 쯤에 담배를 넣어주곤 했다. 보초를 서거나 훈련받다보면 하루보통 10차도 더 넘게 사람들을 신고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총소리가 들렸다. 한번 신고하면 총소리가 약 40분정도 계속 들렸다. 그것이 약 한달 동안 계속 되었다. 비가 올 때는 사람들을 트럭에 죽 엮어서 앉혀놓고 고개만 들면 개머리판으로 때렸고 비가와도 사람들을 신고 갔다. 코발트광산 큰굴에서 다 못죽이니까 옛날 굴뚝(코발트 녹이는 데)에서도 사람들을 죽였다. 시체를 묻으러 갔다온 사람들이 다녀와서는 '너무 참혹하게 많이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그나마 군에 있었지만 부모님들은 굉장히 시달렸다. 특히 코발트 광산 지서에서 빨치산 습격을 받고 순사 한 명이 죽은 후로 더욱 그랬다. 평산 9개동이 평산지서 하나에 속했는데, 그 동네사람들은 참 많이 시달려야 했다. '밤에는 인민공화국이, 낮

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빨치산으로부터, 경찰들로부터. 도시보다 오히려 시골이 더했다. (그때 순경 유순경(혹쟁이)가 지금 조사과에 있음)

내가 듣기로는 여기사람들 충청도로 가고 다른데 사람들이 코발트광산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용성지서 주임(박만수)이 사람들을 많이 풀어주어서 민심을 많이 얻어서 2대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 제보자 : 박태순 할머니 (74세) / 피학살자 오영대(30세)

"그때 제국시대는 전부 아가씨 뭐 다 꼬집에 가가지고 밥 갖다 날라준다 카더라 그런 거 한다 케가 전부 나어리가지고 전부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만 16이고 지금 나이로 치면 17살 때 시집을 왔어요. 우리 영감되는 사람은 21살인데 고때는 21살되만 모두 군대를 가요. 그래서 21살 때 군대를 갔는데, 결혼하고 3년만에 군대를 갔는데 21살 때 갔는데, 3년을 있다가 제대해가 나왔어요. 일본군을 제대해가 나왔어요. (해방이 되서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글 몬배왔다고 접장이 한분 계셨는데 인지라도 글 배워야 된다케가***** 서당에 한문을 배운다고 나가더라고예, 그때는 접장한테 배웠다. 이 양반이 하도 양심이 곱고 이래가 말이 남자지 여자 한가지라. 그래가 남이 한찰 때리면 맞고 있지, 때리는 일 없고, 그래가 그런 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안했지. 마 글 배우러 가는갑다 있었다마는... 지녁으로 미칠 안나가니까네 종종 친구들이 부르러 와여.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 부르러 와여. 그래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갑다 싶었다만. 그래가 지녁에 놀고들어오고 그래여. 그래도 전혀 그런 일 하는줄은 몰랐지. 그래가 있는데...이자 6.25사변 터져가 뭐뭐 이카고 있는데 이자 사람들이 모지가 오는기 눈치가 이상하더라고. ***** 그래가 한날 밤에는 이자 얘기를 들고 모깃불을 마당에 놓고 덕시기를 퍼놓고 알라를 들고 잠이 잠시 들었어요. 그래가 자뻐는데...그런데 일어나보이 시누가 언니야 자뻐서 몰랐나 클났다 카더라고 와 이카이 어떤 사람이 불리는데 오빠가 나가디마는 오빠가 마 붙잡히 가뿌따 이케여.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상하다. 뭐 죄진일 없는데 뭐뻐에 부잡히가노. 설마 오겠지 이카고 있었어요. 그래 있었는데 하루가고 이틀가도 소식이 없더라고예. 그때는 이자 마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예. 그래서 이사람 저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라이..(경산유족회 사무국장님을 가르키며) 이사람 아버지 하고, 우리 집에하고, 화식이 아버지 하고 서이가 붙잡히 갔뿌따 카더라고예. 왜 불들리 갔느냐 물으이 그래 거 소문에 이 지역에 도요다라카는 사람이 오안데 그때 말로 빨갱이 오안데 와가지고 도장만 찍어주만 이자 고생안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도장만 찍어도라고 뒤치리는 내가 한다 하여튼 마 도장만 찍어주마 여 가입만 하마 편안하기 니것 내것 없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기 있다카미 경산에 도요다라카는 사람이 우리 마실에 누굴 시키가 도장을 전부 받아갔다. 그래 했는데 이 양반이 참 어리숙게도 그래 뭐 도장을 뭐 그카이까네 편하게 일안하고 살 수 있다 이카이께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가 명단에 이름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카이 마 도장을 찍어 쫓뿌리따 잡디더. 찍어 쫓다. 직접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다카데. 그래가 찍어쫓는데...넌중에 이야기를 들으이 그카데. 그래가 마 우야 쫓네 같이 죽지도 모하고 찾아라 케도 찾도 모하겠고. ***** 어디있노카이 경산 경찰서에 있다 잡디다. 그래 *** 가보이 면회도 안시키주고 보지도 모하겠더라.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경산에 가이까네 (광산이 있는)평산지서로 끌리갔다 잡디다. 그래 평산지서로 끌리갔다 케가지고 시살 못는 아를 들고, 아바리아도 그래도 이 아를 한번 뷔주자 이래가 안 보고 싶

졌나 카메 내가 들고 밥을 뺨뺨에 사가 평산지서로 가보이 마 나가뺨다 캡디더. 밥을 안받 아취요. 안받아 줬는데 그질로 가가 광산에 가가 찍있는 모양이라. ***** 그래가 그 밥을 참 울민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해가고 잇해 가고하이 누구는 돈 열매씨가 나오고 누구는 돈 열매씨가 나왔단다 이캡디더. 우리는 아이고 큰죄도 없는데 설마 나오겠지 뭐 오래있겠나 카면서 기다렸는기 결국에 죽고 안나옴디더. 그래가지고 마 오늘날꺼지 살아왔는 기라예. 그머 살아왔는과정은 말할 수도 없고, *****보상 그거 얼마되야 보상이 되겠어여. ****솔직한 말로 남들은 뺨깡이가 죽었다 이카는데 참 그 소리 듣는기 그렇게 귀가 아픍 디다. ****자식들한테도 너저 아바이 그래가 죽었다 소리 평생에 한번도 안했습니다. ***저거 가 한 살 두 살 묵고 학교가고 하이 저것도 남한테 듣는 기라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친구한테 아무꺼시 아바이가 뺨깡이해갓고 죽었다 뭐 어떻단다 카이 얼마나 자숙이 골뱅이 들겠어요. 그래가 저거는 내 마음 아플까봐 아버지 우째가 죽었는가 이야기 안하고, 나는 저 거 마음 아플까 싶어까봐 이야기 안하고..... 나이들고 이라이 이자 아 그때 그래 되었구 나 하는 걸 알아요.

저저도(자식들도) 죽어도 한이 맺히기 있고, 내가 죽어도 한이 맺히기 있다 이말임디. 뭐 죽어도 이기 한이 맺히기 있습니다. 그래가 이자 우리 아들도 종교로 보내는 것이 헤나 저 거가 크면 말이죠 너저 아버지 뺨깡이 해가 죽었다 뭐다 카면서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이 *****아이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 뭐하노 카면서 무슨 일이나 저지르면 우야노. 이기 참 걱정이라예, 그래가 아(이)들한테 야들아 너저 마 교회가라. 교회가른 참 우리가 복 받고 참 좋다. 예수를 믿으면 참 복받고 *****그래가 지금 우리 아들은 장로가 되어 있고,,,, ****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를 못했으니까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불르라고 그래가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카면서 불렀지 가들은 아버지 우에 생겼는지 하나도 몰라예". (마을은 압량면 신대리)

● 제보자 : 손재모씨

저는 형제간이다 보이 언제 나갔는가 대충알고 평산지서에 가가 고문당했다는거 조금 알고 저는 잘 몰라예.*****별로 참 내가 참 형제이다 보이게 이 아지매처럼 직접 그거 그트마 몰라도 형제일이다 보이 기억 나는 것도 없고, 고때 나갔는 날짜, 듣기기로 지서에 끌리갔다가 또 코발트 광산 지서에 있다가 거서 이자 고문당하고, 내 생각 것으면 다 명단 올리줘가지고 죄책이 같다고 생각되는데 뭐 우예된 일인지 간에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거 있는 사람은 있고, 결국엔 거 안나온 사람 보이게 *****얼매 안있다가 코발트 광산 굴안에 들어가자 총살시키고 뭐 밑에 **** 코발트 광산이 지하로 마이 내리간다 카데요****거 가가 이고 밀어부르고 총살시키고 인자 그런말을 그 당시에 들어다카이. (할머니) 그때 거예 돈 좀 썼는 사람은 전부 나오고, 그라고 거 순경이 쪼매라도 아는 사람은 다 나오고 그랬어예. (사무국장님) 보통 사람들은 죄를 안지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라고 니기적니기 적 그러다가 일을 당해버린 경우다. 결과적으로 돈없는 사람은 죽고 돈 있는 사람은 조금 노력해서 나온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할머니) 도요다는 뭐 돈씨가 안죽었다 그라고, *****(일은 그 사람이 다 시켜서 했는데) 거는 안죽고 살아있다 카데. 형제는 모두 3형제 인데 말형이 돌아가셨다. 성함은 손성모씨입니다.

(혹시 돌아가신 이유를 조금이라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마카 여 아주무이도 이야기하다 시피 보도연맹에 가입했기 때문에 불리가지고 죽었 을.....명단만 올렸는지 도장을 내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불들리가가 마 죽 었다. ****우리 마실에는 이렇게 불리나간 사람이 모두 3사람인데 모두 객지나가버리고 지 금은 살지 않아여.*** (마을은 경산시 압량면 당음리)

● 제보자 : 경산유족회 사무국장 이정우씨

저는 8살 때 6.25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때가 사변이 일어난 한 여름 7월말이나 8월 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들 부친이 군인2명으로부터 포승에 묶여서 끌려갔 습니다. 끌려가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코발트 광산 부근에 있는 지서로 끌려가서, 한 15일정 도 구금되어 있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모친이 음 식을 해가지고 가서 면회도 하고, 또 우리는 그때 가난했지만 큰집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돈 좀 가지고 와서 빼내가라 하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못구해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형님한테 들은 이 이야기인데 (부친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가지고 CIC 그당시는 특무대라고 듣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 들을 끌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마을에서는 5명이 끌려가서 5명이 모두 죽었다고 생 각하고 있고, 유골은 현재 코발트 광산 굴 안에 묻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성장하면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사실은 있습니다. 군에서 제대를 하고 군속으로 취직을 한적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 취직 을 1년정도 해있다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원조회를 하니까, 신원조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부역 및 행불 이레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비밀취급인가를 못 얻었습니다. 못얻고 업무를 군에서 한3년동안 한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올 무렵에는 그것이 화근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보수가 좋은 쪽으로 **** 몰래 처형해놓고 행불로 위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 제보자 : 경산유족회 회장 유윤암씨

저는 저의 둘째 형님입니다. 그머 사건개요 같은 거는 말씀을 드릴라면 굉장히 시간이 들 고, 우리는 농사 좀 많애 가지고 머슴도 세 사람이나 데리고 살고 그랬거든요 참봉집이었어 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 동네가 그때 기와집이 3채 밖에 없었어요 전부 초 가집이고...

(그때 사시는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경북 용성면 쟁광동.. 그런데 그때 동네호수는 60호 정도 되었는데, 매년 초가집이 요새는 그런기 없지만 짚을 메워야 되는데 매년 짚을 덮습니다. 그런데 우리집이 좀 크고 하다보이 집이 우채 4칸 아래채 3칸 또 따로 사랑방에 1칸 해가 우리집에서 짚을 엮을라 그라만 사닥 다리가 필요해여 사닥다리가 굉장히 컸어여. 높을테를 올라갈라카만..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저거는 다 초가집이니까 이집에 가져가고 저집에 가져가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 사닥다리 가 어데에 있는지 동네에 물어봐야 되여. 소유는 우리인데도....이집이 필요하면 이집이 가져 가고 저집이 필요하면 저집이 가져가고....나중에 우리집이 필요하면 물어서 찾아야 되었어요

그때 용성지서에 들어가는 경비전화를 논으로 질러가지고 저쪽 경산서까지 해가 경비 전화가 요새 거트면 큰 전주가 아이고 쪼그만 전주 간이전준데(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경비전화선을 누가 잘랐어요. 잘랐는데 그 현장에 우리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그리 경찰들이 나와서 조사를 해보이 이거이 누구끼냐 아무게 까다. 그래가 잡아간기랴요. 이새끼 이거 누가 잘랐냐? 우린 모른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른다. 평소에도 이진 우리집에 없다. 이래 말해도 막무내가여. 그래가 지서가가 뚜드려 맞는걸 한 다섯여섯 차례 되가 맞고, 나와가 또 메칠있다가 불리가가 맞고, 그래가 나는 현장에 사람이 불들리가가 뚜드려 맞는데도 겁이나가 아무도 안가이, 그래도 밥이라도 해가 가야될꺼 아이가 케가 내가 지서에 밥을 들고 갔어요. 내가 갔을때도 여러 사람이 와가 뚜드려 마가 지서 바닥에 완전히 실신되가 놓였고, 완전히 죽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집에 와가 있었어요. 그런데 추력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나오라 그래요. 그 밑에 형님이 아이고 가지 마이소 그래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가 마 그 추력타고 갔는데 그라고 부터는 거시기 마 소식이 없어요. 그래가 우리 세째 형님이 가지마라 그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가 그길로 가가 우리 형수는 아들하나 있던거 죽어뿌고 형님도 그래가 행방불명 되어뿌고, 젊은 나이에 혼자 살수 있나 이혼해가 재가 해뿌리고....그 형님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 네째 형님 아들이 제사를 지내지.. 지금 제사 지내는 날은 그 나간 날이 7월 1일이에요. 나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 날짜가 확실하지 않은 날은 제사를 그날로 안하고 9월9일로 제사를 지내요 음력 9월 9일로....음력으로 7월 1일날 나갔는데 그날 죽었는지 모르께네 그때 형님이 몇살 이었는가는 잘 모르겠네. 그래서 수소문은 하니까 전부 경산 여 있다 그래요. 그래가 밥은 해야 안되겠나 해서 밥을 해가 가니까 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받아주더라. 그래가 우리도 가 보이 받아주겠나 그래지예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돈만 좀 주만 빠져나온다. 우리는 그런데 죄도 없는데 돈을 줄 필요가 있겠나... 죄없으면 나오겠지..그랬지요.

(죄명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죄명은 없고 니가 빨갱이 아니냐? 왜 경비전화 잘랐는데 니가 그 사닥다리를 빌려줬냐? 니가 준거 아이가? 실제로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유주가 우리니까 요새 말로 어려운말로 하면 니가 이적행위 한거 아이가. 그러이 뭐 그때는 때리는기 지금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걸 그 상황을 안보면 상황과악을 못하니까

(지서에 갔을때 대량 몇명정도 잇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략 10명정도는 있었어요.

(그때 마을에 다른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은 없었나요)

우리 자형이 또 갔어요. 자형이 그때 말가지고 구루마 가지고 물건 실어다 나르고 대구에 나무도 갖다 팔고 했는데...단지 니가 처남 매부간 아이가 그래가 차말로 아무관계도 없는데 사닥다리 하고도 관계가 없는데도 끌리갔어요. 그때 자형도 매나 쟁광에 살고 있었다. 나는 이말을 입밖에도 안냈는데...

(유가족이 피해입은 것은 없었는가)

내가 군대갔을때는 내가 군번났는날이 59년도 9월 2일입니다. 그때는 내가 못살아가지고 군대도 도둑질 하는기 많았어요. 특히 쌀, 휘발유 도둑질 하는기 많았지. 그래서 줄병들한테는 먹이기 없었어요. 그때 내가 수색중대 카는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자대에서 물건을 사다가 먹고 하기 때문에 보급을 안받고, 거는 위험수당 카는것도 있고 그래서 밥이 먹고 싶

어가 거 갈라고 신청을 했어요. 내가 먼저 수색중대에 간 하사한테 거 좀 갈랍니다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와가지고 넌 안돼 그래가 나중에 내가 몇때문에 그라는가 이야기나 좀 해주시오 알아봅시다 그랬죠. 그러이 너거 형님이 빨갱이라는데 그런데 가가 되겠나. 그러이 뭐 그 사람한테 사정해보이 되나, 또 한번은 서울시청에 시험을 치니까 어떤 때는 발령을 내가 신원조회를 하는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신원조회를 해가 발령을 내는 때도 있는데, 서울 시청에 시험을 쳐놓고 신원조회를 해보이 심사하는 사람이 야 이거 형님이 빨갱이라도 애가 그때 국민학교 다녔는데 뭐 알아가지고 사상범을 했겠나 그러이 옆에 있는 사람도 참말로 그렇다 해가지고 공무원이 된거지요.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불려고 탄원서를 냈는데 관청에서는 알수 없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둘째 형님과 자형분은 현재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도 공무원이어서 알지만 사람 죽이놓고 행정 서류 하나도 없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현재 둘째 형님과 자형은 경산시 평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폐코발트 광산에서 죽은 것으로 추측된다.

3. 청도 민간인학살 피해유형

청도지역도 경산지역과 마찬가지로 90% 이상이 보도연맹에 의한 학살이다. 청도 유족회 박희춘씨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청도의 고태제와 춘밭골 등지에서 약 300여명의 보도연맹원이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 청도지역에 대한 증언조사는 아직 경산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몇 사례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 제보자 : 박희춘씨(청도 유족회 대표)

·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경찰서에서 사람이 나와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아버지를 잡아갔다. 이때 순경들은 다른 집으로 가면서 아버지에게 아무런 감시 수단도 안붙이고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게 연행을 하였다. 이때 아버지는 보도연맹원이 아니었다. 그런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경찰서로 가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서주임이 숲의 느티나무로 발생했던 감정으로 본서로 넘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는.....혼란한 시기에 큰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국책을 이해하여 성실하게 실천하려고, 사실로 '맥도 모르는' 친공, 용공자들과는 대립하고 설득하며 무사할 것만 바라던 분이셨다. 좌경인 친척 때문에 근심하시고, 짧은 밀천으로 교훈 하시다가 무식하다는 편견을 들으시고도 포기하지 못하셨다.

아버지가 연행되어 간 다음 날 경찰서로 가보았다. 경찰서 정문에서 오른편 남쪽 오십보 거리에 국민회당이라는 데가 있었다. 그곳에 사백여 명의 보도연맹원이 연금상태로 있었다.....나는 그날 이후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다음날 담요를 가지고 가셨던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오셨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서였다. 명산댁이 남편을 면회하러 갔을 때 국민회당은 텅비어 있더라고 했다.⁹³⁾

● 제보자 : 000씨

· 당시 나는 대구에 나와 있어서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데.....우리집에서 결혼 잔치가 있기 몇 일 전날 산에서 빨치산이 내려왔다. 빨치산이 뭐라고 집에 요구를 한 후 사라졌고, 이 사실을 우리 형님께서 다음날 지서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하자마자 우리 형님은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6·25가 터진 후 금방 예비검속되어 아직까지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곰티재에서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⁹⁴⁾

청도 유족회 박희춘 대표는 보도연맹 사건에서 이렇게 과장되고 거짓인 보도연맹원이 많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시 보도연맹 가입자 수는 각 지역에서 상부로 보고된 공비(빨치산) 및 좌익 가담자의 수에 비례해서 할당되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는 공비나 좌익 가담자의 수를 상부에 뺄겨서 보고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렇게 되다보니 지역별로 할당된 보도연맹원의 수도 늘어났다. 그래서 지역 담당자는 자기의 지역에 할당된 보도연맹원 수를 맞추려고 무고한 양민이나 좌익활동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을 보도연맹에 가입시키기 시작했다.

4. 포항 민간인학살 사례

포항지역은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조사한 포항 지역의 민간인학살 사례보고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수장 사례이고, 하나는 미군 전투기나 함포사격에 의한 학살사건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수장사례에 대해 언급하겠다.

남상휘 전해군 포항경비부 사령관은 한국전쟁 당시 상부의 작전지시에 따라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처형한 후 포항 앞바다에 수장했다고 말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경찰이 좌익활동 혐의로 주민 2백여명을 재판도 없이 처형했으며 해군은 이들 시신을 수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50년 해군 포항경비부 사령관(중령)이었던 남상휘(南相徽.75.뉴욕거주) 예비역 해군준장은 10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50년 7월 경주.포항.영덕 일원에서 주민 약 200명을 좌익활동 혐의로 검거, 소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들을 해군에 인계해 함정에 싣고 나가 바닷가에 수장했다"면서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돌을 매달았다"고 말했다. 남씨는 미주 한국일보가 1950년 7월께 한국 해군과 경찰이 포항 앞바다에서 재판도 없이 주민 2백여명을 함상에서 처형, 수장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같이 회상했다.

남씨는 "당시 좌익혐의자에 대한 처형은 포항 뿐만이 아니라 대전 등 많은 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처형 명령은 군의 경우 국방부, 경찰의 경우 내무부 최고위층으로부터 전언통신문을 통해 하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6.25전쟁이 터지자 발

93) 이 내용은 박희춘씨가 직접 쓴 "보도연맹", 1990, 도서출판 삼화, 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적은 것이다.

94) 위 증언내용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필자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임의로 적어 놓은 것이다.

등에 불이 떨어진 군.경은 검거된 사람들에 대한 좌익활동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판을 열 겨를이 없었다"면서 "경찰의 협조요청으로 처형된 시신을 함정에 싣고가 수장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살아 있을 때 역사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고 말했다.

남씨는 1946년 해안경비대에 입대, 여순반란사건 진압작전 등에 참가한 뒤 49년포항경비부 사령관, 52년 해병 제1전투단 부단장 등으로 참전, 많은 훈장을 받았다. 그는 1959-60년 해병 제1전투여단장(준장)을 거쳐 진해 해병교육기지사령관으로 있을 때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당시 이한림 육군 1군사령관 등과 함께 반혁명분자로 체포, 예편됐으며 61년8월 도미,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한국일보,2000.1. 11)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 포항지역 민간인학살을 조사했던 김상섭씨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 남상휘 장군의 증언에 의하면 약 200여명의 보도연맹원이 장기곶 등대 근처에서 총살 후 수장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변가로 떠밀려 온 사체를 직접 수습한 안소악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사체에는 총상이 전혀 없었고, 손과 목이 결박된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수장된 위치도 장기곶 등대 근처라는데에 김상섭씨는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섭씨는 남상휘 장군이 갑자기 양심선언을 하게 된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⁹⁵⁾

포항지역 역시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로서,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학살된 곳이었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약 1,000여명 이상의 보도연맹원이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역 학살의 사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구룡포 고디굴, 학다리골에서의 학살이다. 여기서는 시신 20여구가 수습되었고, 구룡포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이 이곳에서 학살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2) 연하계 학살사건. 불행하게도 연하계 학살사건의 유족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 학살된 사람은 아마 포항부근 북부지역의 사람들이 처형된 곳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3) 포항 민간인학살 사례의 8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서 수장이 있다. 수장의 경우 유족의 증언을 제외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관계로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5. 새로운 역사인식 구축과 구술사적 의미로서의 진상규명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역사 정의에 대한 딜레마는 예전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진행중인 논쟁이다. 과연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의 나열인가? 또한 역사는 지배자의 역사가 민중의 역사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작업은 민중 중심의 역사관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구술사(oral history)적 측면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95) 실제로 남상휘 장군은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팀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바 있다.

구술사는 잊혀져 버릴 수도 있었던 한국 현대사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올바르게 역사인식 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정신대 문제였다. 쓰여지지 않았던 정신대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은 할머니들의 구술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는 곧 쓰여진 지배자의 역사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마침내 중심적인 역사인식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70-80년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 특히 광주민중항쟁과 같은 사례 역시 이제는 떠돌고 있던 민중의 구술사가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역사인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작업은 위의 2가지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똑같이 중요성을 가지는 사안이다. 얼마 있지 않아 목격자들과 경험자들은 우리의 곁을 떠날 것이다. 이들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진상규명 작업은 넓은 의미에서 새로운 역사인식을 가지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일 것이다.